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어(新語) 교육 연구
-줄임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이

2020년 8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어 교육 연구
-줄임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신 우 봉

장 이

이 논문을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6월

장이의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배 영 환

위 원 최 대 희

위 원 신 우 봉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06월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Neologism for
Chinese Learners

: focused on Abbreviations

Yi Zhang

(Supervised by professor Woo-Bong Sh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0.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hin Woo-Bong, Prof. of Korean Languag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4
1.3. 연구 내용 및 방법	12
II. 이론적 고찰	16
2.1. 줄임말과 관련된 술어 및 정의	16
2.2. 줄임말의 형성법과 유형	26
2.2.1. 줄임말의 형성법	26
2.2.2. 줄임말의 유형	31
2.2.3. 신어에서 줄임말의 결합 유형	38
III. 줄임말의 교육용 목록 선정	43
3.1. 교육용 목록의 선정 기준	43
3.2. 교육용 목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46
3.3. 교육용 줄임말 선정 결과	57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줄임말의 교수 방안	66
4.1. ‘O-H-E’ 방법론을 활용한 교수 방안	66
4.2. ‘P-P-P’ 방법론을 활용한 교수 방안	71
4.3.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교수 방안	76
V.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7

표 목 차

<표 1> 줄임말 관련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연구	18
<표 2> 줄임말 원어종별의 결합 유형	39
<표 3> 줄임말 원어형식의 단위별 결합 유형	40
<표 4> 줄임말 형성 방식별 결합 유형	41
<표 5> 줄임말 신어 선정 기준	45
<표 6> 교육용 줄임말 선정 방법 및 절차	47
<표 7> 「2018년 신어 보고서」에서 선정된 40개의 줄임말	48
<표 8> 「2019년 신어 보고서」에서 선정된 54개의 줄임말	49
<표 9> 최근에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한 46개의 줄임말	50
<표 10> 응답자 성별 구분	51
<표 11> 줄임말 사용 여부	51
<표 12> 사용 빈도에 따른 줄임말 목록의 선정 결과	58
<표 13> 줄임말 최종 목록	59
<표 14> 2019년 신어 조사에서의 주제 분류 범주	60
<표 15> 줄임말 산정 목록 주제별 분류	64
<표 16> ‘O-H-E’ 교수 방법론(이종은, 2005;52)	66
<표 17> ‘O-H-E’ 교수 모형의 3가지 단계	67
<표 18> ‘O-H-E’ 수업 모형을 활용한 수업 지도안	68
<표 19> ‘P-P-P’ 교수 방법론(이종은, 2005;49)	71
<표 20> ‘P-P-P’ 교수 모형의 5가지 단계	72
<표 21>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한 수업 지도안	73
<표 22> ‘플립드 러닝’ 적용한 수업 지도안	77

그림 목 차

<그림 1> 단어 형성 과정(남기심 · 고영근, 1993;191)	26
<그림 2> 단어 형성 과정(최형용, 2003;198)	27
<그림 3> 단어 조어법(이재현, 2005;396)	30
<그림 4> 단어 형성법(임옥정, 2016;9)	30
<그림 5> 조사 결과에 따라 줄임말 선정에서 제외한 예	52
<그림 6> 조사 결과에 따라 줄임말로 선정한 목록의 예	53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줄임말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목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 교육에서 줄임말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실제 어휘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줄임말 어휘 자료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줄임말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 보고서를 토대로 「2018년 신어 조사」와 「2019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776개의 신어를 기초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신어 자료 보고서에 수록된 신어 중에 줄임말을 추출하고, 교육용 줄임말의 선정 기준 절차를 거쳤다. 기준 자료에서 선정한 줄임말과 최근 대중 매체에서 수집한 줄임말을 합쳐서 총 140개의 줄임말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줄임말 어휘 55개를 교육용 목록으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별로 분류한 줄임말 목록을 활용하여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O-H-E’ 수업 모형과 ‘P-P-P’ 수업 모형, 그리고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 모델을 적용한 세 가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신어, 줄임말, 줄임말 교육, 줄임말 목록 선정, 국립국어원, 줄임말 교육 방안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줄임말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 주제별 분류 목록을 활용하여 줄임말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고, 기초 자료에서 추출한 줄임말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생활에서 고빈도로 사용하는 줄임말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줄임말 목록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언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어휘의 경우,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따라 매년 수많은 신어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언어가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신어는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어휘처럼 사전에 등재되어 검색되는 경우도 많다. 변시내(2010)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 학습에서의 언어와 실제 언어생활과의 괴리에서 힘들어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을 보며 신어 교육과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레호(2011)에서는 일반 교육용 어휘와 함께 신어는 한국어 어휘 체계의 일부분이며, 한국 현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한국어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어가 활발히 쓰이는 현실에서 신어 교육은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사이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신어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한국어의 어휘 체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임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줄임말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특히 21세기 이후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증가로 인해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꾸안꾸(꾸민듯 안꾸민듯),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 등과 같은 줄임말이 급속도로 생산되면서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들도 이러한 줄임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줄임말의 사용은 한국만의 언어현상은 아니며,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TMI’, ‘DIY’, ‘OMW’ 등이 있는데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이고,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이고, ‘OMW’는 ‘On my way!’의 줄임말이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 모두에게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며 축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줄임말 ‘喜大普奔’가 있는데 이는 ‘喜聞樂見, 大快人心, 普天同慶, 奔走相告’를 줄여 말한 것이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ゲルピン’가 있는데 이는 ‘ゲルト(お金)がピンチ’를 줄여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터넷 용어나 문자 메시지 용어로 많이 사용되던 줄임말이 인터넷 기사나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¹⁾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줄임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창의적이고 재미있어 줄임말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긍정적 관점도 존재한다²⁾.

1) ‘ㅇㅋ’ ‘ㅇㅇ’ 자음으로 의사소통... ‘자음’ 전성시대 (SBS8뉴스|2014.10.9.)

‘갑분싸’, ‘이생망’?...‘신조어 능력시험’ 직접 풀어보니 (KBS뉴스|2018.10.9.)

“모처럼 모인 자리 ‘갑분싸’?...신조어를 아시나요” (연합뉴스TV|2019.2.1.)

‘인싸’ 전현무(Jun Hyun moo)의 신조어 강의☞ #오늘아눔 #오저치고, 아는 형님(Knowing bros) (186회|2019.06.29.)

2) EBS NEWS 기사에 따르면 한 캄보디아 한국어 학습자가 “여러분들 혹시 ‘노잼’,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캄보디아에서는 없는 이런 줄임말들이 저에게 특별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고 말했다. EBS NEWS 게시일: 2019. 11. 26.)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각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어휘를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습득 과정에서 다양한 줄임말 어휘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어휘 교육만을 통해서 줄임말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인이라도 줄임말을 모르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한국어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어휘 체계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어휘만 가르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줄임말을 통한 새로운 어휘체계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옥이(2008)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7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줄임 표현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9.6%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에서 줄임 표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윤이나(2012: 27)에서는 한국어 3급 이상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59명에게 신어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1%의 응답자가 신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대부분이 한국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였다. 김백희(2018)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82.6%가 신어를 배우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강홍(2015)에서는 줄임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인 학습자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87.5%의 학습자들이 줄임말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전공 수업에서 한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많아지며 kakao talk(통신매체), 인터넷 등의 미디어 매체를 이용할 때 배우지 않은 줄임말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시점에서 만들어진 줄임말 신어의 습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줄임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너목보(너의 목소리가 보여)7>에 출현한 우크라이나에서 온 장학생 마리아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며,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같은 줄임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줄임말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목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줄임말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신어 교육의 중요성 관련 연구, 한국어의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줄임말 관련 연구 및 한국어 교육에서의 줄임말 관련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가) 신어 교육의 중요성 관련 연구

우선 신어 교육의 중요성 관련 연구로는 여소몽(2010), 이래호(2011), 윤이나(2012), 노슬기(2014), 이대현(2016), 김백희(2018), 정현규(2020) 등이 있다.

여소몽(2010)에서는 신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어의 언어적 측면’과 ‘한국의 사회와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신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어법에 따른 한국어 어휘의 의미, 구조를 이해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신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현 시대에서의 한국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래호(2011:158-161)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 어휘에 대한 연구와 어휘의 교수법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대상은 주로 교재에 나타난 어휘, 즉 의사소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휘만을 활용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어휘 교육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신어 어휘들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신어는 한국어 어휘체계의 일부분이며,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있어 일반 어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교육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을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³⁾, 신어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단어의

형성법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용해 신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어는 표현어휘보다 이해어휘에 맞추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이나(2012)에서는 한국어 교사 12명과 외국인 학습자 59명을 대상으로 신어 교육의 실태와 신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들도 신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59명 중 71%의 학습자가 신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고급 학습자들의 경우 신어 학습을 통해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어의 교육적 가치를 밝힘과 동시에 신어 교육에서의 단어 형성법과 신어를 활용한 사회·문화 교육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노슬기(2014)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어 조사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현재 사용 여부, 고빈도 출현 여부, 고빈도 주제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신어 자료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신어 자료를 어종과 단어 형성 방식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대현(2016)에서는 신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어휘이며,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신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대현(2016)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신어를 분석하여 교육용 목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 목록을 바탕으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모형과 토의·토론 학습 모형들을 적용하여 신어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백희(2018)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3) 이래호(2011:158-161)에서 제시한 신어 교육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어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한다.
2. 신어 교육을 통해 최근의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면서 신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신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정치·사회·경제 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4. 한국의 문화와 어휘를 동시에 익힘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끌 수 있다.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학습자 중의 82.6%가 신어를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의 역사성 측면에서 신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신어가 등장한 사회 배경에 초점을 두고 문화 교육과 함께 신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정현규(2020)에서는 신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⁴⁾,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주제별로 분류한 신어의 교육 목록을 활용하여 어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17년, 2018년의 「신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신어를 중심으로 신어의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기술한 후, 신어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 주제별 분류 목록을 활용한 신어의 교육 방안을 함께 제시한 바가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한국어 신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신어 교육의 필요성, 교육용 신어의 선정과 교육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어가 한국어 어휘 체계에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줄임말 관련 연구

언어학적 관점에서 줄임말에 관한 연구로는 우민섭(1974), 이승명(1987), 이석주(1988), 이희자(1997), 이지양(2003), 최형용(2003), 이재현(2005), 도원영 외(2007), 송철의(2008), 고영근·구본관(2011), 류철우(2011), 최형강(2016), 임옥정(2016), 박선옥(2017) 등이 있다.

우민섭(1974)에서는 약어가 발음을 빠르게 하거나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4) 정현규(2020:29-30)에 제시한 신어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신어를 통해 사회 변화를 엿볼 수 있다.
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신어 교육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읽기와 듣기 분야다.
3. 신어 교육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문화가 반영된 신어로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음 혹은 음절을 줄인 말이며, 넓은 의미에서 원어의 형태나 발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약어가 준말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승명(1987)에서는 준말이 형태 또는 음절의 단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말이 그 이하 단위로 줄어진 말이라고 칭하였다. 준말에 대하여 본딤말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준말은 본딤말과 상호 환원·교체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통시적으로 굳어진 말은 준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석주(1988)에서는 약어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나 구를 줄여서 간략하게 만든 형태가 약어형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한국어의 단형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송철의(1993)에서는 준말이 단어 또는 하나의 기식군(氣息群)으로 이루어진 구에서 앞뒤의 두 음절이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하나의 음절로 줄여 만들어진 언어형식이며, 준말과 본말이 모두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희자(1997)에서는 ‘준말, ‘줄인 꼴’, ‘준 꼴’, ‘줄어서 된 말’, ‘줄여서 만든 말’로 분류한 다섯 가지의 유형범주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준말에 대한 정의는 단어에서 그의 구성 성분의 일부를 줄여 간략하게 만든 형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준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만 ‘준 꼴’과 ‘줄인 꼴’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준 꼴’이란 ‘나는’이 ‘난’으로 되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하나의 형태로 줄어드는 것으로 형태론의 언어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줄인 꼴’이란 ‘불고기 백반’이 ‘불백’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단어의 결합체에서 그 일부가 그의 원래 형태를 대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근용(1998)에서는 약어를 준말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준말의 유형을 ‘자른말, 머리음절말, 꼬리음절말’로 나누어 살폈으며, 한국어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에서 한자어에 의한 형성된 약어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지양(2003)에서는 준말이 단어 혹은 구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감축이 생긴

결과에 음절수가 축소되어 형성된 단어라고 제시하였으며, 준말의 ‘형성 조건 · 형성 과정 ·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최형용(2003:198)에서는 국어의 단어 형성과 구조 파악을 위해서 ‘형식적 증가, 형식적 무증감, 형식적 감소’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줄임말에 대하여 ‘형식적인 감소’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단어라고 정의하였다⁵⁾. 그러나 ‘형식의 줄어들음’ 외에 ‘줄기 이전과 준 다음의 형식이 모두 어휘적 단어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과 ‘새로 형성된 단어가 그 이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여 줄임말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재현(2005)에서는 줄임말과 관련된 용어들을 포괄해 ‘축소어형’을 사용하여 준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축소법이라고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준말에 대하여 단어나 구에서 하나 이상의 음운이 줄거나 두 개 이상의 음운이 합쳐지면서 원어정보다 줄어들어 하나의 단어로 꼴이 바뀐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준말로 분류되는 말들은 새로운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류철우(2011)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두 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 단위와 단어 이상 단위에서 필요에 의해 음절을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줄임말을 ‘문법 단위에 따른 줄임말(단어 단위와 단어 이상 단위), 사용 분야와 쓰임에 따른 줄임말(지시적, 상업적, 사회적), 그리고 외래어에서 온 줄임말’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줄임말의 의미 변화와 생성 경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임옥정(2016)에서는 ‘약어와 비(非)약어(약어에 관한 다른 용어들)’의 개념과 생성 과정에 대해 비교·대조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유어 약어를 분류한 과정에서 ‘절취병합어(截取併合語)⁶⁾’란 유형을 설정함으로써 고유어와 한자어 약어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5) 최형용(2003)에 제시한 국어의 단어 형성법과 관련된 부분은 2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6) 임옥정(2016:77)에서 절취병합어는 원어에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어휘가 존재할 경우, 언어 경제성에 따라 형태적 어형 삭감이 일어나지만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선옥(2017)에서는 국립국어원 『2015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277개의 신어 중에 28개의 줄임말을 추출하였으며, 줄임말 신어가 생성되는 현상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줄임말의 생성 동인에 대해 심리적 동인과 사회·문화적 동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⁷⁾.

이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줄임말 관련 용어들의 개념, 유형 분류, 단어의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2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줄임말 교육 관련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줄임말 교육 관련 연구는 교재 중심 연구와 다른 언어와의 비교·대조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조옥이(2008), 우가민(2012), 이호영(2015), 진보라(2016) 등이 있다.

조옥이(2008)에서는 줄임 표현이란 용어를 사용해 ‘줄임말’, ‘준말’, ‘줄인 꼴’, ‘준 꼴’, ‘줄어든 꼴’, ‘줄어든 말’, ‘약어’, ‘생략’, ‘축약형’, ‘축소어형’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지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11개 교재에 나타난 줄임 표현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줄임 표현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줄임 표현을 분류하여 교육용 줄임 표현 목록을 선정하였다.

우가민(2012)에서는 한국 현지에 5개의 교육기관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준말을 정리하여 준말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준말의 사용 빈도수에 따른 준말 교육 목록을 선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교재에 수록된 준말만을 교육 목록으로 선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7) 박선옥(2017:98)에서는 줄임말 생성의 심리적 동인을 어휘의 구조적 측면과 어휘의 사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어휘의 구조적 측면에서 줄임말의 생성 동인은 기존에 있는 어휘의 모방 심리와 언어 경제성의 추구 심리, 그리고 어휘 체계의 구축 심리이며, 어휘의 사용적 측면에서 줄임말의 생성 요인은 언어 유희성의 추구 심리라고 제시하였다. 이외에 줄임말의 생성은 사회 시사의 발생, 새로운 사물의 생성, 위모주의의 세태, 그리고 일인가구의 증가와 취업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호영(2015)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준말 교육’의 두 가지 관점으로 한국어 준말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7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43권의 한국어 교재로 준말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교재 내의 대화형 본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준말의 사용 빈도와 양상을 파악한 후에 준말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줄임말 교육 연구에서도 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기초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수집해서 교육하였으며, 최근에 만들어진 줄임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장염옥(2007), 이지은(2011), 강훈(2015), 성세행(2017) 등을 들 수 있다.

장염옥(200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중 한자어 약어의 생성 방식과 형태론적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동형동의어 약어, 동형이의어 약어, 이형동의어 약어’로 나누어서 의미론적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이지은(2011)에서는 줄임말에 대하여 ‘본래의 말을 가지고 있으나 본래의 형태와 음절을 줄여서 만든 말’로 정의하였으며, 한·일 줄임말 현상에 대해서는 음절수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2음절로 사용되는 줄임말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어에서는 3음절 또는 4음절로 사용되는 줄임말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훈(2015)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줄임말과 준말, 약어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줄임말의 형성 동기와 형성 원인, 그리고 줄임말의 사용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줄임말과 중국어 약어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하여 대조·비교 하였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에 동형어가 존재하므로 줄임말을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동의이형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세행(2017)에서는 한국어 줄임말의 유형을 ‘각 어절의 첫음절로 구성하는 두 가지 2음절어 방식’, ‘구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절단어 방식’, ‘두 단어가 절단되면서 일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혼성어 방식’으로 분류하고, 중국어 약어는 크게 ‘생략법’, ‘총괄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

국어 줄임말과 중국어 약어의 음절수별 사용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중 한자어 유형이 비슷하고 2음절로 이루어진 줄임말이 많다는 공통점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줄임말 대조 연구의 대다수는 양국 줄임말 관련 용어들의 개념 및 유형, 단어의 형성 방식 등에 대해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었다.

다음으로 줄임말의 교육 방안 관련 연구로는 도과(2011), 진보라(2016), 도영림(2017), 루쿤(2018) 등이 있다.

도과(2011)에서는 한·중 축약어의 정의, 조어법, 유형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축약어의 조어법은 줄임법, 생략법, 단축법, 혼성법, 총괄법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 중국어 축약어의 조어법에는 줄임법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축약어를 활용한 강의 계획서와 ‘도입 → 제시 → 발전 → 정리’ 4단계의 지도안을 마련하였으며, 축약어의 교육대상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로 제한하였다.

강혼(2015)에서는 외국인 학습자 80명을 대상으로 줄임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87.5%의 학습자들이 줄임말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줄임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줄임말 교육의 목록 선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원리를 적용하여 줄임말의 지도 방안을 ‘인식단계 → 학습단계 → 연습활동단계 → 확인단계’로 구성하였다.

진보라(2016)에서는 한국어 교재, 선행 연구, 시나리오에 나타난 줄임말 표현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육용 줄임말 목록 185개를 선정하였으며, ‘융합법 줄임말’ 교육 방안의 예시와 ‘절단법 줄임말’ 교육 방안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준구어(準口語)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을 할 때 쓰이는 말뭉치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도영림(2017)에서는 21세기가 도래한 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한·중 통신 언어의 사용 양상을 기술한 뒤,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위해서 한

국어 통신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너섹남’과 같은 예를 활용한 교육인데 유추법을 활용한 축약어 교육 방안이다.

루쿤(2018)에서는 약어 목록 사전과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많이 나타난 한국어 약어(300개)와 중국어 약어(200개)를 정리하여 이를 ‘원어 결합 유형, 구성 방법, 의미 범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약어 교육 지도 방안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방안, 한·중 약어의 대조를 통한 방안,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줄임말 교육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 원리를 적용한 교육 방안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어 교육원리를 적용한 교육 방안이나 교사 중심의 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육 방안을 다루었을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줄임말 교육 방안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한국어 줄임말 교육 관련 연구들과 같이 최근 몇 년간에 생성된 신어 말뭉치를 담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 보고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해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 어휘를 조사한 후 교육용 목록을 선정한다. 또한, 선정한 교육용 목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다양한 미디어 자료와 함께 활용해 줄임말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효과적인 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줄임말 목록을 선정하고, 주제별 분류 목록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줄임말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반 어휘의 경우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줄임말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초급 단계에서 교육하기 힘들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 학습력과 이해력을 어느정도 가

지고 있는 중·고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어에 생성된 신어 어휘를 담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 보고서」를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 자료를 통하여 줄임말 신어의 어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줄임말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어 자료 보고서를 PDF 파일로 받았다. 지금까지는 최신 말뭉치를 수록한 신어 자료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희박했으므로,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신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신어 자료 보고서 중 「2018년 신어 조사」와 「2019년 신어 조사」 2개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의 「2018년 신어 조사」, 「2019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신어 중, 줄임말 어휘를 살펴 본 결과, 「2018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신어 434개 중 줄임말 어휘 40개를 추출하였고, 「2019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신어 342개 중 줄임말 어휘 54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대중 매체에서 표현된 줄임말 46개⁸⁾를 추가하여 총 140개의 줄임말 어휘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줄임말 어휘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줄임말 55개를 선정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정한 줄임말 목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줄임말 단어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이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Lewis(1993)에서 언급된 ‘O-H-E(Observation - Hypothesis- Experiment, 관찰-가설-실험)’ 과정을 실제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 방법론으로 발전시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Byrne(1968)에서 언급된 ‘Presentation - Practice - Production, 제시-연습-생산’

8) 이 46개의 줄임말은 2019년 7월 이후 강원일보, 뉴스엔, 조선일보, 제주일보, 연합뉴스, SBS 연예뉴스, KBS 뉴스 등 인터넷 기사 및 방송 뉴스에 쓰인 줄임말과, 유튜브 동영상 자료, 대한외국인, 라디오스타, 놀라운 토요일, 더 짠내투어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줄임말을 조사하고 정리한 것이다.

모형은 언어 교육에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교사 중심의 학습 절차와 통제된 연습을 주요한 교수 방법으로 수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이 결여되고 다양한 언어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yrne(1968)에서 언급된 ‘P-P-P(제시-연습-생산)’ 과정을 ‘도입 → 제시 → 연습 → 활용 → 정리’ 5가지 단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구성하였다.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은 교사가 준비한 수업 관련 동영상과 자료를 학생이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보고 학습하는 교수·학습 방식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줄임말 수업 지도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으로 1장 서론에서는 줄임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줄임말 관련 용어들의 개념 및 유형, 단어 형성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검토하고, 줄임말이란 용어로 통칭하였다. 그리고 ‘줄임말’을 ‘단어, 구절, 또는 문장의 언어 단위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나 본래의 형태보다 간략한 형태로 줄어든 말이며, 본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본말과 자유롭게 상호 교체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재정의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줄임말의 선정 기준을 살펴본 후, 줄임말 목록의 선정 과정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국립국어원 2018, 2019년의 「신어 조사 보고서」를 연구 대상으로 줄임말 신어를 추출하고, 최근에 대중 매체에서 수집한 줄임말을 추가하여 140개의 줄임말 목록을 선정한다. 선정한 줄임말의 실질적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55개의 줄임말을 교육용 목록으로 선정한다.

4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줄임말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언어교육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O-H-E’ 교수법과 ‘P-P-P’ 교수법을 활용한 줄임말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형적인 수업 과정을 뒤집는 형태의 학습 모델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하여 줄임말 수업 지도안을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적 고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학자마다 줄임말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며, 줄임말과 관련된 ‘준말, 약어, 축약어, 줄임 표현’ 등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줄임말의 개념과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줄임말의 사전적 정의와 학자들 각각의 논의를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줄임말과 관련된 술어 및 정의

기존 연구에서 쓰이는 명칭들은 ‘약어, 준말, 줄임말, 줄인 꼴, 단축 어휘, 생략, 축약형, 축소어형, 혼성어’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준말’과 ‘약어’의 사전적 정의만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줄임말’, ‘약어’, ‘준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 :

① ‘준말’ :

「명사」

『언어』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예를 들어서 ‘사이’가 ‘새’로, ‘잘가닥’이 ‘잘각’으로 된 것 따위이다. ≒ 약어(略語).

② ‘약어’ :

「명사」

「1」 『언어』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드는 것. 예를 들어서 ‘사이’가 ‘새’로, ‘잘가닥’이 ‘잘각’으로 된 것 따위이다.=준말.

「2」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원말로 하여 각 단어에서 주로 한 음절씩 뽑아 만든 어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준말’과 ‘약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줄임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다.

(2) 『고려대한국어사전』 :

① ‘준말’ :

「명사」

[언어] 원래 어형보다 음절이나 형태소 따위가 일부 줄어서 간략하게 만들어진 말. 둘 이상의 음절로 된 말을 줄인 말로는 ‘사이’가 ‘새’로, ‘마음’이 ‘맘’으로 된 따위가 있고, 머리글자만 따거나 형태소 이상의 말을 줄여 간편하게 쓰는 말로는 ‘노동조합’이 ‘노조’로, ‘한국은행’이 ‘한은(韓銀)’으로 된 경우가 그 예이다. 유의어: 줄임말.

② ‘약어’ :

「명사」 [언어] 어떤 말을 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여서 표시한 말. ‘고등학교’를 ‘고교’라고 하거나 ‘한국은행’을 ‘한은’이라고 하는 것 따위를 말한다.

③ ‘줄임말’ :

「명사」

본래의 어형보다 음절이나 형태소가 간략하게 줄어든 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회관을 학관이라 부르고, 중앙 도서관을 중도라고 부르는 등 학교 시설들을

줄임말로 부른다. 유의어: 준말.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다르게 ‘줄임말’을 명사로 품사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표제어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준말’을 ‘약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준말’의 유의어를 ‘줄임말’이라 제시하고 있다.

각 사전에서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준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원래의 어형보다 형태소나 음절이 일부 줄어서 간략하게 만들어진 말’로 볼 수 있다. 약어는 준말과 동일하게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원말에서 각 단어에서 주로 한 음절씩 뽑아서 만든 어휘’, ‘어떤 말을 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여서 표시한 말’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줄임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 ‘또는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 만든 말’, ‘본래의 어형보다 음절이나 형태소가 간략하게 줄어든 말’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줄임말 관련 용어 및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줄임말 관련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연구

준말	이승명(1987), 이석주(1988), 송철의(1993), 이희자(1997), 정근용(1998), 이지양(2003), 이재현(2005)
약어	우민섭(1974), 이석주(1988), 정근용(1998), 임옥정(2016)
줄임말	최형용(2003), 이지은(2011), 강훈(2015), 박선옥(2017), 박재연(2017), 성세형(2017)
축소어형	이재현(2005)
축약어	도파(2011)
줄인말	류철우(2011)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줄임말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학자들이 ‘준말, 약어, 줄임말, 축소어형, 축약어’ 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준말’, ‘약어’, ‘줄임말’을 사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존 연구에서 준말에 대한 정의로는 이승명(1987), 송철의(1993), 이희자(1997), 정근용(1998), 이지양(2003), 이재현(2005)이 있다.

이승명(1987:202)에서는 준말이 音節 또는 형태의 短縮이라는 관점에서, 두 音節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이 그 하위 단위로 줄어진 말이라고 하였다. 준말이 본딤말과 상호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이미 통시적으로 굳어진 말은 준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준말이 본딤말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철의(1993:47)에서는 준말이 단어 또는 하나의 氣息群으로 이루어진 구에서 앞뒤의 두 음절이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 음절로 줄어서 만들어진 언어형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준말과 본말이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희자(1997:27)에서는 준말이 단어에서 그 일부를 줄여서 간략하게 만들어진 형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근용(1998:101)에서는 준말에 대하여 말할 때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단어나 구의 구성요소 중 음운이나 음절을 ‘생략, 축약, 절단’하여 본래의 형태보다 간략한 형태로 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통사나 의미범주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본말과 자유롭게 상호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양(2003:293)에서는 준말이 단어나 묶이는 구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감축이 생긴 결과에 음절수가 축소되어 형성된 단어라고 하였다. 이재현(2005:187)에서는 준말이 하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나 구에서 하나 이상의 음운이 줄거나 두 개 이상의 음운이 합쳐지면서 본래의 어형보다 간략하게 한 단어의 형태로 된 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준말은 단어나 구 구조에서 그 구성 요소 중 음운론

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나 본래 어형보다 간략한 형태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준말은 본말과 자유롭게 상호 교체 가능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약어에 대한 정의로는 우민섭(1974), 이석주(1988), 정근용(1998), 임옥정(2016)이 있다.

우민섭(1974:69)에서는 약어가 말과 發音을 便하게 하고 速度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音節이나 音을 줄인 말이며, 넓게는 原語의 發音이나 形態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준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狹義의 略語는 같은 時代에 原語와 恒時 같이 쓰일 수 있어야 하며, 原語와 略語는 相互 交替가 可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석주(1988:124)에서는 두 音節 이상으로 된 單語나 句文을 줄여 簡略하게 만든 형태가 略語形이라고 하였으며, ‘약어’는 ‘한국어의 단형화’라고 정의하였다.

정근용(1998:101)에서는 약어를 준말의 하위 술어로 보고, 단어나 구에서 그 구성요소 중 음운이나 음절이 ‘생략, 축약, 절단’을 하여 본래의 형태보다 간략한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약어는 통사나 의미범주에 변화가 없어 본말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으며, 음운을 줄인 말과 음절 단위 이상을 자른 말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임옥정(2016:45)에서는 약어에 대하여 단어 또는 단어 이상의 결합체에서 음절 단위의 삭감이 일어나 음절수가 줄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였다. 약어는 같은 시대에 원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문맥에서 원어와 상호 교체할 수 있는 의미적, 형태적으로 유사한 단어 또는 단어 성격을 지닌 언어 단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약어 및 준말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민섭(1974)에서 약어는 음이나 음절을 줄인 말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준말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반면, 정근용(1998)에서는 약어에 대하여 준말의 하위 술어로 취급하고 있었다. 또한, 임옥정(2016)에서는 준말은 주로 음운론적인 축약, 탈락을 거치거나 수의적이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보았고, 약어는 원어에 형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준말보다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줄임말에 대한 정의로는 최형용(2003), 이지은(2011), 강흔(2015), 박선옥(2017)이 있다.

최형용(2003:198)에서는 ‘줄임’에 의한 통사적 결합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줄임말’은 형식적 감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단어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칭하였다⁹⁾.

이지은(2011:57)에서는 줄임말에 대하여 본래의 말을 가지고 있으나 본래의 형태와 음절을 줄여서 만든 말이라고 하였으며, 강흔(2015:12)에서는 단어나 구로 된 말에서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삭감으로 인해 음절수가 줄어든 형식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선옥(2017:99)에서는 줄임말이 조어법상 축약의 과정으로 생성된 구나 문장을 줄여 쓴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줄임말은 단어나 구절,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래의 말을 줄여 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재현(2005:396)에서는 여러 차원의 축소어형 가운데서 단어와 관련이 있는 준말을 골라내고 준말의 조어 방법을 축소법으로 설정하였다. 도파(2011:4)에서는 축약어란 단어를 줄여 쓰며, 원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류철우(2011:9)에서는 줄임말을 단어나 단어 이상의 언어 형식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음절의 일부를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 줄임말 관련 용어 사용이 다양하며, 학자마다 유형 분류 기준에 대한 설정도 각기 다르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준말과 약어에 대해 어떻게 분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송철의(1993), 이희자(1997), 이지양(2003), 임옥정(2016)이 있다.

송철의(1993:3-4)에서는 준말의 예들을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¹⁰⁾.

9) 최형용(2003)에 제시한 줄임말의 조어법은 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0) 송철의(1993)에서는 본격적으로 준말을 하나의 언어학적 용어로 정립하기 위해서 준말의 형태론·음운론의 성격을 밝혀 준말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는 ‘준말’이라고 보고, 준말과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어형을 ‘두자어, 융합형, 혼효형’ 등의

- ㄱ. 아이 → 애, 이 아이 → 애, 가을 → 갈
- ㄴ. 노동조합 → 노조, 전기축음기 → 전축, 사범대학 → 사대
- ㄷ.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
- ㄹ. 국산품 → 국산

위에 제시한 예들에서 (ㄱ)은 음절수의 감소로 형성한 것들이므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ㄱ)과 같은 현상은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ㄴ)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고, (ㄴ)과 같은 현상은 주로 한자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송철의(1993)에서는 준말이라는 용어를 ‘학술 용어’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ㄱ)과 (ㄴ)의 예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ㄱ)의 예들은 준말로 인정하는 반면에 (ㄴ)의 예들은 (ㄷ)의 예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자어로 취급하였다. (ㄹ)의 예들은 단순히 하나의 음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준말에서 제외하였다. 송철의(1993)에서 정의한 준말의 범위를 보면, 다른 논의들에 비해서 준말을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희자(1997:27-35)에서는 형식의 줄어듦과 관련하여 ‘준말, ‘줄인 낱’, ‘준 낱’, ‘줄여서 만든 말’, ‘줄어서 된 말’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으며¹¹⁾, 각 유형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가) 준말: 단어에서 일부를 줄여서 간략하게 만든 형태를 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준말’과 ‘본딧말’의 관계에 있는 것은 어미면 어미, 명사면 명사와 같이 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가지는 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와 ‘아이’의 경우, 둘 다 명사에 속하므로 ‘준말’과 ‘본딧말’의 관계를 갖는다.

다른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11) 이희자(1997)에서 논의한 ‘줄어서 된 말’은 본 연구의 줄임말과 가장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희자(1997)의 경우 제시한 원래의 말과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을 포함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언급한 줄임말은 원래의 말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① 거기(게) 썼거라.

② 고기 조금(좀) 주세요.

③ 그는 아버지의 눈을 한참 동안 마주보고(맞보고) 있었다.

나) 준 꼴: 예를 들어 ‘나는’이 ‘난’으로, ‘-다고 해’가 ‘-대’로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나의 형태로 줄어드는 결과물을 이르는 말이다. ‘준말’과 ‘본딧말’의 관계에 있는 것은 둘 다 표제어인 데 반해, ‘준 꼴’과 그 본래의 꼴의 관계에 있는 것은 ‘준 꼴’ 만 설명 대상이 된다.

① 뭘(무엇을) 그렇게 궁리하니?

② 전(저는) 싫어요.

③ 그는 이해하길(기를) 바란다.

다) 줄인 꼴: 두 단어 이상의 결합체에서 그 일부가 그 원래의 형태를 대신하는 것으로, 국어에서는 각 단어의 첫음절을 따라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 같은 곳에서 주문할 때 ‘불고기 백반’을 ‘불백’으로 줄여서 하는 것처럼 입말에서나 흔히 쓰이는 것을 일컫는다.

라) 줄여서 된 말 : ‘뭘뭘이 줄여서 된말’처럼 어떠한 형태가 존재할 때 그것이 원래의 꼴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 쓰이게 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점잖다(형용사)’, ‘그림(감탄사)’, ‘맹세코(부사)’와 같이 각각 ‘젊지 않다’, ‘그러면’, ‘맹세하고’가 줄여서 된 말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① 육갑 떨지마./ *육십갑자 떨지 마.

② “그림(*그러면), 여부가 있다.”

③ 난 맹세코(*맹세하고) 아무런 원망하지 않겠다.

마) 줄여서 만든 말 : ‘가정용 전기’를 ‘가전’으로, ‘농업과 수산업’을 ‘농수산’으로 줄여서 말한 것과 같이, 이들은 명사의 기능을 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 단어나 구 형성에 쓰인다.

또한 이지양(2003:287)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준말을 체계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¹²⁾, 준말에 속하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ㄱ. a. 가아 → 가, 오았다 → 왔다
- b. 가을 → 갈, 처음 → 침
- ㄴ. a. 노동조합 → 노조,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b. 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 아더메치유
- ㄷ. a. 보름달 → 보름, 국산품 → 국산
- b. 암행어사 → 어사
- c. 대한석유공사 → 유공
- ㄹ. a. 건드리다 → 건들다, 가르치다 → 갈치다
- b. 짧지 않다 → 짐작다, 우리 엄마 → 울엄마

먼저 (ㄱ)에서는 음운론적 현상과 관련되는 예들인데 이 가운데 (ㄱa)는 필수적 음운규칙의 적용(음운 탈락 등)으로 인한 준말로 볼 수 없으며, (ㄱb)는 수의적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전형적인 준말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였다. (ㄴa)는 복합어에서 일어나는 두음절어이며, (ㄴb)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음절어이다. (ㄷ)은 절단으로 이루어진 준말들이며, (ㄷa)는 뒷부분 절단, (ㄷb)는 앞부분 절단, (ㄷc)는 앞뒤 양쪽 절단이다. 그리고 (ㄹa)는 단일어를 바탕으로 생성된 준말이며, (ㄹb)는 둘 이상의 형태소나 단어로 이루어진 언어형식에서 융합으로 이루어진 준말이다. 이지양(2003)에서 (ㄱa)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형들을 모두 준말로 취급한 것을 보면, 다른 논의들에 비해 준말을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지양(2003)에서는 기존 논의에 비해서 준말의 범위를 넓히고 음절수가 줄어들며 형성되는 대부분의 경우를 준말로 인정하며, 언어는 경제성을 추구함에 따라 그 말을 사용하는 언중들에 의해 준말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축약되기도 하는 성격을 밝혔다.

약어에 대한 논의로는 임옥정(2016)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송철의(1993)의 ‘준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어형 삭감은 ‘준말’로 보고,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어형 삭감은 ‘약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우민섭(1974)에 제시한 협의의 약어를 바탕으로 약어의 성립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임옥정, 2016:20-21).

가) 약어가 원어의 형태와는 음절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원어가 최소 두 음절 이상의 언어 단위여야 한다.

나) 형태적으로 약어가 원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어에서 줄어들어 약어가 된 후에는 약어와 원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하며, 서로 교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원어는 현재 사용하는 말이어야 한다.

라) 원어에서 약어가 된 어형은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이상 살펴본 논의들은 한국어의 줄임말과 관련한 용어들의 개념 및 범위, 유형 분류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이므로 한국어 줄임말 단어의 유형, 형성 방식을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줄임말을 칭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며, 학자마다 줄임말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으로써 ‘줄임말’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단어, 구절, 또는 문장의 언어 단위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나 본래의 형태보다 간략한 형태로 줄어든 말이며, 본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본말과 자유롭게 상호 교체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재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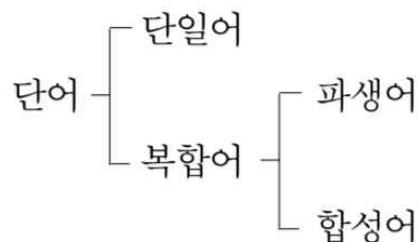
2.2. 줄임말의 형성법과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임말 관련 연구에서 줄임말의 형성 방법에 대한 논의는 수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지만, 줄임말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언급해 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줄임말의 형성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줄임말의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 줄임말의 형성법

줄임말의 형성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어에서 단어 형성 과정으로 언급된 개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성’과 ‘파생’의 이분법적 개념이다. 즉 한국어 단어 짜임에 따른 종류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는 것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¹³⁾.

<그림 1> 단어 형성 과정(남기심, 고영근, 1993: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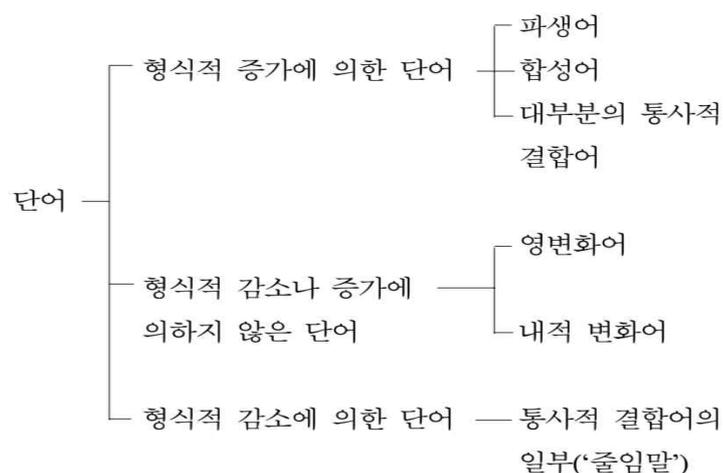
<그림1>에서의 복합어(파생어·합성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파생은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

13) 남기심·고영근(1993:191),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이고, 합성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어 형성 과정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수많은 신어들이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단어의 내부 구조도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합성과 파생의 두 과정만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을 재정의하고 줄임말의 형성 방법을 보다 자세히 논의한 연구로는 최형용(2003), 이재현(2005), 임옥정(2016) 등이 있다.

최형용(2003)에서는 국어의 단어 체계에서 합성과 파생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형식적 증감’이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단어 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을 ‘형식적 증가’, ‘형식적인 감소’, ‘형식적 무증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형식적 증가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결합어의 대부분이며, 형식적 감소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통사적 결합어의 일부이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무증감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영변화어와 내적 변화어로 분류하였다. 최형용(2003)에서 논의한 단어 형성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단어 형성 과정(최형용, 2003:198)



<그림 2> 에 제시한 ‘통사적 결합어의 일부(‘줄임말’)'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는 국어 단어의 전부가 아닐 수 있지만, ‘형식적 감소에 의한 단어’, ‘형식적 증가에 의한 단어’, ‘형식적 감소나 증가에 의하지 않은 단어’의 세 가지 관점은 국어의 전체 단어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 감소’에 의해 형성되는 ‘줄임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최형용, 2003:211).

가) ‘줄임말’은 형식적인 감소 과정을 통해 새로운 어휘적 단어로 결과된 것이다.

나) (가)에서 ‘줄어듦’이 일어나기 전의 형식은 내부 구조를 갖지만 하나의 어휘적 단어여야 한다.

다) (가)에서 ‘줄어듦’이 일어난 다음의 형식은 ‘줄어듦’이 일어나기 전의 형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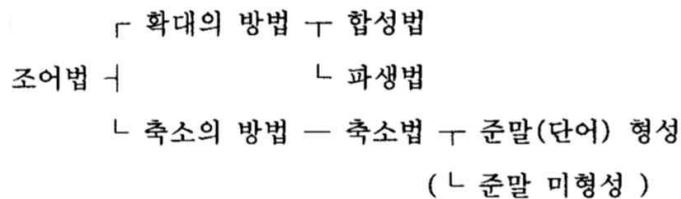
반면, 이재현(2005)에서는 줄어든 언어 형태를 ‘축소어형’이라고 하였다. 축소어형은 본래의 언어 형태를 줄여서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말이며 이들은 모두 새로운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축소어형의 형성 방식은 조어론적 관점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국어의 조어법은 크게 ‘합성’과 ‘파생’으로 나누어진다는 전제 아래, 단어나 어근, 어간과 같은 구성 성분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말들은 합성이나 파생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단어인 준말은 새로운 조어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어법인 ‘축소법’을 도입하였다. 축소법은 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어법으로써 ‘합성’과 ‘파생’과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재현, 2005:394-395).

- 가) 말의 재료를 다루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합성법과 파생법은 형태소나 단어와 같이 이미 있던 말의 재료를 가지고 그것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축소법은 이미 있던 말의 재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식이다. 즉, 합성법과 파생법이 확대의 조어 방법이라면, 축소법은 축소의 조어 방법이다.
- 나) 합성법이나 파생법은 형태소부터 말 만들기가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형태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에 비하여 축소법은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 전체가 탈락하기도 하지만 형태소나 단어의 경계를 넘어서 음절이나 음운을 축약시키거나 탈락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형태소나 단어의 구성을 깨뜨리기도 한다.
- 다) 합성과 파생의 방법은 단일어로부터 복합어를 만들거나 복합어로부터 새로운 복합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축소는 단일어와 복합어뿐만 아니라 구적 구성에서도 일어나는데, 새로운 말은 본래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단일어나 복합어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일어를 복합어로 만들거나 복합어를 단일어로 만들지는 않는다.
- 라) 합성이나 파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새 말은 모두 새로운 단어가 된다. 축소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 말이 모두 다 새로운 단어로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어법으로서의 축소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축소어형은 본어형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로써의 준말이 된다. 축소가 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 마) 합성이나 파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새 말은 그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축소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본래의 형태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 바) 합성이나 파생은 형태소의 결합을 통하여 단어를 만듦으로써 단어의 차원에 한정된다. 그러나 축소법은 형태소나 단어, 구적 구성 등 여러 차원에서 시작하여 단어의 차원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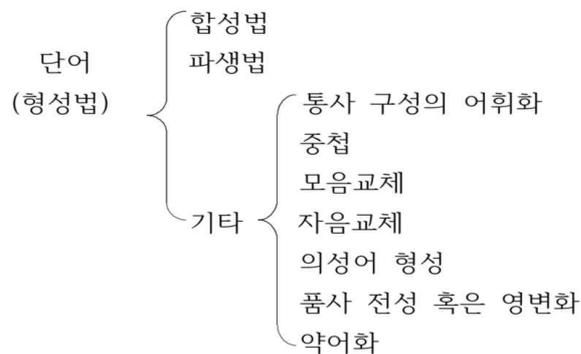
또한, 축소법은 말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 합성법과 파생법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축소법이 새 말을 형성해 낸다는 점에서 파생법, 합성법과 달리 조어 방식의 한 가지로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조어법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단어 조어법(이재현, 2005:396)



한편, 임옥정(2016)에서는 약어가 원어로부터 ‘어형 증가’가 아닌 ‘어형 삭감’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어를 전통적인 조어 방식의 합성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조어법인 ‘약어화’를 도입하여 다음 <그림 4>과 같이 제시하였다¹⁴⁾.

<그림 4> 단어 형성법(임옥정, 2016:9)



14) 임옥정(2016)에서는 ‘약어화’를 조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므로 고영근·구본관 (2011:254)의 단어 형성법에 ‘약어화’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 발표한 신어 자료 보고서는 단어의 조어 방식에 따라 신어를 분류하여 통계낸 것이다. 박선옥(2015)에서는 2014년도에 발표한 신어 가운데 축약에 의해 만들어진 말을 줄임말로 취급하여 줄임말 신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줄임말 신어를 음운적 축약과 음절의 축약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 음운적 축약이 일어난 것을 예를 들면 ‘갠톡’, ‘존맛’이 있다. ‘갠톡’은 ‘개인 Kakaotalk’이 줄어든 말이다. ‘갠’은 ‘개인’의 뒷음절의 모음 ‘ㅣ’가 탈락한 후, 남은 자음 ‘ㄴ’이 앞음절 ‘개’의 받침이 되어 생성된 것이다. ‘존맛’은 ‘좋은 맛’이 줄어든 말이다. ‘존’은 ‘좋은’의 앞음절의 받침 ‘ㅎ’이 탈락한 후 뒷음절의 모음 ‘ㅡ’가 탈락하여 남은 자음이 앞 음절의 받침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음절의 축약이 일어난 것을 예를 들면 ‘감튀’, ‘남사친’이 있다. ‘감튀’는 ‘감자튀김’이 줄어든 말이고 ‘남사친’은 ‘남자 사람 친구’가 줄어든 말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신어 자료집을 활용하여 줄임말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줄임말의 생성 방식이 다양한 신어 중 축약 방식에 의해 생성된 줄임말만을 연구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2.2.2. 줄임말의 유형

이어서 한국어 줄임말의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줄임말에는 축약어, 절단어, 두음절어, 혼성어 및 음절 초성어가 포함된다.

가) 축약어

단어, 구절, 또는 문장의 언어 단위인 원어형에서 몇 개의 음절(또는 음소)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새로운 단어로 만드는 방법을 축약이라고 한다. 축약은 줄임말 단어의 형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원어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음절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 단위 전체에서 몇 개의 대표적인 음절(음소)을 취하는 것이다. 음운론적 변동에 의해 형성된 음소 축약어와 형태론

적 축약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음소 축약어

맘 ← 마음(뒷음절 모음 ‘ㅡ’ 탈락)

존맛 ← 좋은 맛(첫음절 자음 ‘ㅎ’ 탈락)

ㄴ. 형태 축약어

여친 ← 여자친구

엄빠 ← 엄마 아빠

응팔 ← 응답하라 1998

키큰남 ← 키가 큰 남자

꼬돌남 ← 꼬시고 싶은 돌아온 싱글 남자¹⁵⁾

(1)은 축약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음운의 축약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1ㄱ)처럼 주로 모음이나 자음의 탈락으로 만들어진다. 형태의 축약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1ㄴ)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축약어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선택 음절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ㄴ)에서의 ‘여친’과 같이 단어의 앞음절만 취하여 이루어진 축약어는 ‘두음절어’로 부를 수 있다. 한편 ‘엄빠’, ‘응팔’, ‘키큰남’, ‘꼬돌남’과 같이 단어보다 큰 언어 단위에서도 축약어를 찾을 수도 있다. ‘엄빠’, ‘응팔’은 앞음절을 취하는 방식과 달리 구성 단어들의 뒷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키큰남’은 명사구의 각 단어의 앞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꼬돌남’ 같은 경우는 원말이 보다 긴 언어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모든 구성 단어에서 음절을 취한 것이 아니고, 수의적으로 일부의 단어에서만 음절을 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5) 국립국어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2014년 신어로 선정된 말이다.

나) 절단어

단어나 구절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형태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절단어라고 한다. 단어나 구절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잘라진 뒤에 선택된 부분에서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잘라진 부분에 따라 전부(前部) 절단어, 양단(兩端) 절단어, 후부(後部) 절단어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 한국어 절단어¹⁶⁾

ㄱ. 전부 절단어 : 앞부분을 선택하고 남은 부분을 잘라낸 것.

보름 ← 보름날

제주대 ← 제주대학교

ㄴ. 양단 절단어 :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고 남은 부분을 잘라낸 것.

맹휴 ← 동맹휴업

미타 ← 아미타불

ㄷ. 후부 절단어 : 뒷부분을 선택하고 앞부분을 잘라낸 것.

정읍 ← 훈민정읍

컬투쇼 ← 두시탈출 컬투쇼

(2)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절단어는 ‘앞부분을 선택하고 남은 부분을 잘

16) 영어에서 절단어(clipped word)는 잘라진 부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ㄱ. 어두 부분을 취하고 남은 부분을 잘라낸 것 :

예) exam ← examination

ㄴ. 가운데 부분을 취하고 남은 부분을 잘라낸 것:

예) Flu ← influenza

ㄷ. 어미 부분을 취하고 남은 부분을 잘라낸 것:

예) pike ← turnpike

라낸 것,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고 남은 부분을 잘라낸 것, 뒷부분을 선택하고 앞부분을 잘라낸 것'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2ㄱ)에서의 '보름', '제주대'와 같은 경우는 원어의 뒷부분을 잘라낸 전부(前部) 절단어이다. (2ㄴ)에서의 '맹휴', '미타'와 같은 경우는 원어의 앞·뒤 부분을 절단하여 가운데 부분을 선택한 양단(兩端) 절단어이다. (2ㄷ)에서의 '정음', '컬투쇼 ← 두시탈출 컬투쇼'와 같은 경우는 원어의 앞부분을 잘라낸 후부(後部) 절단어이다. 다만 (2ㄱ)과 (2ㄷ)과 같은 전부 절단어와 후부 절단어는 흔히 찾을 수 있는 반면, (2ㄴ)과 같은 양단 절단어는 한국어에서 매우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다) 두음절어

단어나 구절, 또한 문장 속에서 각 어절의 첫음절을 취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두음절이라고 한다.

(3) 한국어 두음절어¹⁷⁾

김냉 ← 김치 냉장고

코노 ← 코인 노래방

마상 ← 마음의 상처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¹⁸⁾

17) 영어에서 두문자어(acronym)의 예는 다음과 같다.

ㄱ. UN ← United Nations,

ㄴ. 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ㄷ. TMI ← Too Much Information,

영어에서 두문자어(acronym)는 각 단어들의 첫 영어 자모(字母)를 취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을 가리킨다. UN[유엔]는 각 단어의 첫 영어 자모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AIDS는 이 미 하나의 영어 단어처럼 음절화되어 [에이즈]로 읽어야 한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TMI도 영어의 두문자어라고 할 수 있다.

18) 국립국어원의 「2018년 신어 조사」에 선정된 말이다.

(3)의 예과 같이 단어나 구절, 또는 문장의 구성 단어의 첫음절을 선택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두음절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이나 뉴스,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 혼성어

원어형에서 일부의 음절이 탈락하고 일부의 음절이 선택되어 재결합한 단어 즉, 두 개의 단어 및 그 이상의 언어형식이 절단과 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혼성어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축약과 절단, 두음절어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생성되는데, 비해 혼성어는 앞뒤 어절의 선택 음절이나 삭감 음절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규칙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혼성어는 원어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어형의 구성 단어들이 모두 절단을 걸친 후 남은 부분으로 이어진 것이다¹⁹⁾.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한국어 혼성어²⁰⁾

ㄱ. 라볶이 ← 라면+떡볶이, 아나듀서 ← 아나운서 + 프로듀서

19) 최형용(2004)에서는 혼성에 대하여 두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 단어를 형성할 때, 그 단어들이 온전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혼성은 원어형의 각 구성 단어들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어형의 각 구성 단어들의 절단을 필연적 과정으로 삼는다.

20) 영어에서 혼성어(blending word)의 예는 다음과 같다.

ㄱ. smog ← smoke + fog

ㄴ. motel ← motorist + hotel

ㄷ. brunch ← breakfast + lunchmodent

영어에서 혼성은 두 개의 단어 또는 그 이상의 언어 형식에서 각 단어의 일부를 취하여 새로운 언어 형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smog, motel, brunch’는 모두 후자의 전형적인 예들이고, 각 구성 단어의 일부를 취하여 새로 만든 혼성어이다. 한국어 혼성어에는 원형식이 영어 단어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smog ← smoke + fog’와 같이 혼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영어 줄임말은 단어들의 경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ㄴ. 치맥 ← 치킨 + 맥주, 짬짜볶 ← 짬뽕 + 짜장면 + 볶음밥

ㄷ. 줌마렐라 ← 아줌마 + 신데렐라

(4)에서는 제시한 바와 같이 원어형의 각 구성 단어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으로 이루어진 혼성어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4ㄱ)의 ‘라볶이’와 ‘아나듀서’는 원어형의 앞 단어의 앞부분 일부와 뒷단어의 뒷부분 일부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혼성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4ㄴ)의 ‘치맥’과 ‘짬짜볶’은 원어형의 구성 단어들의 첫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두음절어와 비슷하지만 원어형에서 큰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즉, 혼성의 원형식은 두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이며, 이 단어들에 의해 형성된 혼성어는 그 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4ㄷ)의 ‘줌마렐라’와 같은 경우는 두 구성 단어의 뒷부분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한자어의 대표적 혼성어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5) 한국어 한자어 혼성어(ACE형)

ㄱ. 자소서 ← 자기 소개서, 취준생 ← 취업 준비생,

ㄴ. 생보사 ← 생명 보험 회사, 투신사 ← 투자 신탁 회사

(5ㄱ)의 ‘자소서’와 ‘취준생’은 앞 단어의 첫음절A, 뒷부분의 첫음절C와 마지막 음절E를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자어에는 이러한 유형의 혼성어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5ㄴ)의 ‘생보사’와 ‘투신사’는 앞의 두 단어의 첫음절과 세 번째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위의 ‘자소서’, ‘취준생’과 유사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혼성으로 형성한 줄임말은 구성 단어의 음절수에 기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6) 혼성어 음절수의 유지

ㄱ. 비조트 ← 비즈니스 + 리조트, 갈겹살 ← 갈비 + 삼겹살

ㄴ. 프로슈머 ← 포로듀서 + 컨슈머

위의 예처럼 혼성어는 구성 단어의 앞 단어나 뒷단어의 음절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6ㄱ)의 ‘갈겹살’과 ‘비조트’는 구성 단어의 뒷단어의 음절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6ㄴ)의 ‘프로슈머’는 구성 단어의 앞 단어의 음절수와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6ㄱ)처럼 뒷단어의 음절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단어가 비교적 많다.

마) 병합어

병합은 두 개의 단어나 그 이상의 단어들이 동형적인 부분(어절)이 존재할 경우,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 원어형의 일부가 삭감되지만 의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조어 방식이다.

(7) 남북한 ← 남한·북한

선후배 ← 선배·후배

예(7)에서의 ‘남북한’은 ‘남한, 북한’의 두 단어에서 같은 음절 ‘한’ 하나를 생략하고 남은 부분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어의 일부가 삭감되지만 ‘남한·북한’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선후배’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원어형의 일부가 삭감되지만 ‘선배·후배’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병합어들은 한국어사전에서 흔히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표준화된 것이다.

바) 음절 초성어

음절 초성어의 방식은 원어형의 각 음절의 초성(첫자음)을 취하는 것이며,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에서 문자를 보낼 때 많이 사용하는 통신언어 중의 하나이다.

- (8) 가. ㅇㅈ ← 인정
 나. ㄱㄱ ← 고고(go go)
 다. ㅂㅂ - 바이 바이(bye bye)~
 르. ㅇㄱ르ㅇ ← 이거 레알(real)?

(8가)의 ‘ㅇㅈ’는 ‘인정’이란 단어의 각 음절의 초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8나)의 ‘ㄱㄱ’는 영어 ‘go go’의 한국식 발음[고고]에서 각 음절의 초성을 취하였다. (8다)의 ‘ㅂㅂ’는 영어 ‘bye bye’의 한국식 발음 [바이바이]에서 각 음절의 초성을 취하여 구성된 것이다. 마지막 (8르)의 ‘ㅇㄱ르ㅇ’은 한국어 ‘이거’와 영어 ‘real[레알]’로 이루어진 원어에서 각 음절의 초성을 조합하였다. 이러한 초성어 줄임말은 보통 젊은 세대들이 통신용어나 인터넷 용어로 많이 사용한다.

2.2.3. 신어에서 줄임말의 결합 유형

다음은 최근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신어 중 줄임말은 어떤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줄임말을 원어종별, 원어형식의 단위, 단어 형성 방식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다양한 결합 양상에 대해 검토한다.

가) 원어종별의 결합 유형

한국어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줄임말의 결합 유형을 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에 의하여 단일원어 줄임말과 복합원어 줄임말로 나눈 뒤, 이를 원어종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줄임말 원어종별의 결합 유형

원어		예
단일 원어 줄임말	고유어	혼말 ← 혼자서 말을 함 낮설렘 ← 낮선 경험이 주는 설렘
	한자어	양맥 ← 양고기 + 맥주 소확성 ←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
	외래어	스라벨 ← 스티디(study), 라이프(life), 밸런스(balance) 케요네즈 ← 케첩 + 마요네즈
복합 원어 줄임말	고+한	윽차 ← 유명과 무명의 차이
	고+외	나일리지 ← 나이 + 마일리지
	한+고	필덕 ← 필기구 덕후
	한+외	하캉스 ← 학원 + 바캉스
	외+고+고	와알못 ← 와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외+고+한	썸만추 ← 썸으로 만남을 추구
	한+고+한	남사직 ← 남자 사람 직원
	고+고+영	얼죽아 ←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처럼 원어에 따라 줄임말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줄임말의 생성에 참여하는 원어의 어종 및 결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의 원어 유형으로 이루어진 언어 형식에서 줄어든 것은 단일원어 줄임말이며, 두 개 이상의 원어 유형으로 이루어진 언어 형식에서 줄어든 것은 복합원어 줄임말이다.

<표 2>에서의 단일원어 줄임말은 각각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세 가지 결합 유형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혼말, 낮설렘’과 같이 단순한 고유어의 줄임말 단어가 있고, ‘양맥, 소확성’과 ‘스라벨, 케요네즈’처럼 한자어와 외래어의 줄임말도 많다. 복합 어종으로 이루어진 줄임말에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윽차, 나일

리지, 하강스' 등의 예처럼 복합원어 줄임말은 여러 어종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나) 원어형식의 단위별 결합 유형

다음으로 줄임말의 결합 유형을 단어나 구, 혹은 문장에 의한 원어형식의 단위로 나누어서 분류하면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줄임말 원어형식의 단위별 결합 유형

유형		예
원어형식의 단위별 결합 유형	단어	섬니 ← 시어머니 ²¹⁾ 몽실 ← 미용실 ²²⁾
	구	얼공 ← 얼굴 공개 연포자 ← 연애 포기자
	문장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혼코노 ←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감

<표 3>처럼 신어 중의 줄임말은 단어, 구, 문장 단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단어를 줄인 '섬니'는 접두 파생어인 '시어머니'의 줄임말이다. 먼저 '시어'의 두 음절에서 모음 'ㅣ+ㅣ → 여'로 줄여 '셔'가 만들어지고, 셋째 음절 '머'의 모음 'ㅣ'가 탈락하고 남은 자음 'ㄹ'이 앞 음절 '셔'의 받침으로 되어 생성된 것이다.

구나 긴 문장 단위에서 어형이 간략하게 줄어든 예로는 '얼공, 연포자, 갑분싸, 혼코노' 등이 있다. '얼공'은 명사구 '얼굴 공개'의 줄임말이며, '연포자'은 명사구 '연애 포기자'의 줄임말이다. 문장 구조의 형식에서 줄인 줄임말 예는 '갑분싸'와

21) 박선옥(2017)에서 가져온 국립국어원의 「2015년 신어 조사」에 선정된 말이다.
22) 위와 같다.

‘혼코노’가 있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의 문장에서 3음절로 줄어든 것이고, ‘혼코노’는 ‘혼자서 노래방에 감’의 문장에서 3음절로 줄어든 것이다.

다) 형성 방식별 결합 유형

줄임말의 형성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하면 축약형, 절단형, 두음절형, 혼성형, 병합형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줄임말 형성 방식별 결합 유형

유형	정의	예
축약형	단어나 구절, 또는 문장의 언어 단위에서 몇 개의 음절(또는 음소)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성장 ← 수영장 얼집 ← 어린이집 너곤나 ← 너의 의견이 곤나의 의견이다
절단형	단어나 구절에서 앞부분이나 가운데 부분, 뒷부분의 형태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름 ← 보름날 슈퍼 ← 슈퍼마켓 과사 ← 학과 사무실
두음절형	단어나 구절, 또한 문장 속에서 각 어절의 첫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마덕 ← 마라 덕후 코노 ← 코인 노래방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혼성형	두 개의 단어 및 그 이상의 언어 형식에서 일부의 음절은 탈락되고, 일부의 음절이 선택되어 재결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막페인 ← 막걸리+삼페인 뉴능 ← 뉴스+예능 연포자 ← 연애 포기자
병합형	두 개나 그 이상의 단어들에 동형적인 부분이 존재할 경우,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 원어형의 일부가 삭감되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의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선후배 ← 선배 + 후배 해륙군 ← 해군 + 육군 말듣쓰 ← 말하기 + 듣기 + 쓰기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단어의 형성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하면 축약형, 절단형, 두음절형, 혼성형, 병합형이 있다. 축약형은 원어형에서 몇 개의 음절(또는 음소)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성장, 열집, 너곤나’가 이에 해당한다. 축약형은 음운 축약과 음절 축약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절단형 같은 경우에는 원어형의 앞 부분이나 가운데 부분, 또는 뒷부분 일부를 잘라내는 데에서 축약형과 차이를 보이며, ‘보름, 슈퍼, 과사’가 이에 해당한다. 두음절형은 원어형의 각 어절의 첫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마덕, 코노, 갑분싸’가 그 예에 해당한다. 두음절형은 단어 생성에서 비교적 규칙적이다. 반면에 혼성형 같은 경우에는 구성 단어들이 모두 절단과 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단어의 결합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어야 한다. ‘막페인, 뉴능, 연포자’가 혼성형의 예에 해당한다. 병합형은 원어형에서 동형적인 부분이 존재할 경우,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 원어형의 일부가 삭감되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의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후배, 해륙군, 말듣쓰’가 이에 해당한다. 아쉽게도 최근의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줄임말 중 음절 초성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III. 줄임말의 교육용 목록 선정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줄임말 교육을 위한 교육용 목록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선정 기준과 한국어 신어 교육에서 어휘의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3.1. 교육용 목록의 선정 기준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줄임말 어휘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줄임말 어휘를 선정하기 전에 우선 기존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선정 기준과 한국어 신어 교육에서 어휘의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선정 기준을 논의한 연구로는 이충우(1994), 조현용(2000), 서상규(2009)가 있다.

이충우(1994)에서는 한국어 교육 중 어휘의 선정 방법은 ‘경험적 방법’,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이 있는데 학습자와 교육 과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험적 방법을 선택하여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고려한 어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설정하였다. 즉,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조어력이 높은 어휘, 교육에 기초적인 어휘,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 시대가 요구하는 어휘, 적용성이 큰 어휘, 그리고 고유 명사, 의태어·의성어, 비속어·은어·방언·유행어, 계급명, 고어 등의 어휘들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조현용(2000)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른 어휘의 선정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Richard(1970)에 제시한 선정 기준과 비슷하다고 제시하였다. Richard(1970, 조현용, 2000:64 내용 참조)에 제시한 어휘 선정의 기준은 언어적 요구(language needs), 분포 범위(range), 규칙성(regularity), 빈도(frequency), 적용 범위(coverage), 학습의 용이성 및 학습 부담(ease of learning or learning burden), 그리고 유용성 및 친숙성(availability and familiarity) 7가지이다.

서상규(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의 기준에 대하여 언어 규범적 관점, 언어 기술적 관점, 계량 기술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언어 기술적 관점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로 대표되는 어휘 빈도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어의 사용과 사실 발견을 위한 자료로서 효용성이 있다고 하였다. 언어 규범적 관점에서는 학습자마다 학습 목적이 다르므로 이에 대응하는 ‘교육용’ 어휘의 선정은 학습자의 학습 단계, 교수·학습 목표, 교육 과정에 맞는 교수,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나 사회가 교육되기를 요구하는 어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언어 계량 기술적 관점에서는 교육 목적에 맞는 어휘 선정을 위해 언어 사실에 근거하여 언어 자료를 처리하고 계량하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은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 언어 사회나 시대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어휘, 교육적 목적에 맞는 어휘,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또는 발달 과정에 맞는 어휘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를 활용하여 신어의 선정 기준을 논의한 최근 연구로는 노슬기(2014), 정재은(2015), 이대현(2016)이 있다.

노슬기(2014)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3,500여 개의 신어 자료를 기초 자료로 분석하여 신어의 선정 기준을 정리하였다. 출현 빈도가 높은 것, 많이 생성되는 주제 영역 선정, 현재 사용 여부,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의 등재 여부, 신어의 교육 목적 적합성 여부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정재은(2015)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09년, 2010년, 2012년도의 「신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939개 신어를 기초 자료로 하였다. 구글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이 신어들의 정착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현 횟수가 500회 이상 신어 192개를 교육용 목록으로 선정하였다.

이대현(2016)에서는 교육용 신어의 선정에 대하여 ‘신어의 활용 빈도’, ‘신어의 조어력’, ‘한국 문화 현상과 문화적 의미 포함 여부’,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맞는 신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신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사용 빈도, 한국어 웹 사전 등재 여부, 교육 목적에 맞는 어휘,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맞는 어휘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용 어휘 선정 기준을 참조하여 줄임말의 선정 요소를 다음 <표 5>와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²³⁾.

<표 5> 줄임말 신어 선정 기준

줄임말 어휘의 학습 용이성 고려 ²⁴⁾
한국어 교육의 적합 여부 고려 ²⁵⁾
줄임말 신어 생성 이후의 사용 빈도 및 사용 범위 고려 ²⁶⁾

23) 줄임말의 대부분이 아직 한국어 웹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어 웹사전 등재 여부’를 줄임말 신어의 선정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24) 신어 중 원어가 모두 외래어이거나,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였으나 경계를 알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한다.

25) 비속어나 비표준어, 또는 성별 혹은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갖는 항목을 제외한다.

26) 경제나 사회 시사에 의해 생성되어 유행했던 말과 특정 분야 관련 항목을 제외한다.

3.2. 교육용 목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신어 중에 줄임말을 수집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2018년 신어 조사」, 「2019년 신어 조사」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는다. 우선 신어 자료 보고서에 수록된 신어 가운데 본 연구에 제시한 줄임말 정의 및 선정 기준에 맞는 목록을 제시하고, 최근의 대중 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을 추가하여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²⁷⁾.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줄임말을 교육용 목록으로 선정한다. 줄임말 목록 선정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27) 설문조사는 구글 웹 사이트에서 작성한 <한국인 모국어 화자 대상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표 6> 교육용 줄임말 선정 방법 및 절차

1단계	신어 자료 보고서에서 줄임말을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국립국어원 조사 발표된 「신어 조사 보고서」 신어 434개 ◆ 2019년 국립국어원 조사 발표된 「신어 조사 보고서」 신어 342개 ◆ 총 776개 신어 중에서 본 연구에 제시한 줄임말 정의 및 선정 기준에 맞는 목록 제시
2단계	줄임말 사용 빈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대중 매체를 통해 줄임말을 추가적으로 수집(46개) ◆ 줄임말 신어와 대중 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로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3단계	최종 줄임말 목록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통해 줄임말의 사용 빈도 분석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줄임말을 최종 목록에 선정

가) 신어 자료집에서 줄임말 목록을 수집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2018년 신어 조사」, 「2019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신어를 기초 자료로 삼았다. 국립국어원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신어는 단어(222개)와 구(212개)를 포함하여 모두 434개이다. 2019년도에 조사한 신어는 단어(217개)와 구(125개)를 포함하여 모두 34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신어 중 단어 222개, 2019년도 신어 중 단어 217개를 중심으로 줄임말을 수집하였다. 한자어 접미사 ‘-족(族)’이 신어에서 가장 높은 생

산성을 보이므로 줄임말과 ‘-족’이 결합한 신어를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434개의 신어 가운데 줄임말은 89개이며, 「2019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342개의 신어 가운데 줄임말은 94개이다.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 수집한 줄임말 어휘 89개 중 <표 5>에 제시한 선정 요소를 통하여 49개의 항목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 용이성을 고려하여 ‘스라벨’, ‘에스시에스피’, ‘지아르더블유엠’, ‘액티비케이션’, ‘마가노믹스’ 등과 같이 원어가 모두 외래어이며,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였으나 경계를 알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하였다. 교육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나일리지’, ‘남페미’, ‘냄저’, ‘똥겜’ 등과 같은 비속어나 비표준어, 혹은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갖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줄임말 생성 이후의 사용 빈도 및 사용 범위를 고려하여 ‘고프코어’, ‘골세권’, ‘뜯플’, ‘리또속’, ‘부포족’ 등과 같은 경제나 사회 시사에 의해 생성되어 유행했던 말과 특정 분야 관련 항목은 제외하였다.

다음 <표 7>은 2018년도의 신어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줄임말 선정 요소를 통해 선정된 40개의 줄임말이다.

<표 7> 「2018년 신어 보고서」에서 선정된 40개의 줄임말

가성비템	가심비	가잼비	갑분피	갑분싸	값성비
국영수코	나성비	나심비	런예인	립덕	막페인
멘짚	문센족	소확성	수부지	양맥	여행잘알
연포자	와알못	운알못	이맛현	종못사	책카족
카페인족	코노	클알못	탈잘싸	퇴준생	편가족
편과족	편채족	평부심	필덕	하캉스	혼말
혼케족	혼코노	회알못	홀로		

「2019년 신어 조사」에서 추출한 줄임말 어휘 94개 중 <표 5>에 제시한 선정 요소를 통하여 54개의 항목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 용이성을 고려하여 ‘러라벨’, ‘마싸’, ‘머라벨’, ‘셀플루언서’, ‘스케테인먼트’ 등과 같이 원어가 모두 외래어이며,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였으나 경계를 알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하였다. 교육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서우디’, ‘폰라니’, ‘인싸템’, ‘취가’, ‘헬린이’ 등과 같은 비속어나 비표준어, 혹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줄임말 생성 이후의 사용 빈도 및 사용 범위를 고려하여 ‘고고단’, ‘공투’, ‘냉트리피케이션’, ‘대끝치’, ‘델입’ 등과 같은 경제나 사회 시사에 의해 생성되어 유행했던 말과 특정 분야 관련 항목은 제외하였다.

다음 <표 8>은 2019년도의 신어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줄임말 선정 요소를 통해 선정된 40개의 줄임말이다.

<표 8> 「2019년 신어 보고서」에서 선정된 54개의 줄임말

가취관	갑분교	갑분긱	갑분띠	공능제	공홈족
남사직	낮설렘	내시피	뉴능	대확행	댓림
돈알못	돌민정음	마덕	만반잘부	매완얼	면까몰
미면	민거	민쓰템	보배	불확행	빵타
서캉스	설참	소만행	소피커	소확행	숨밍
썸만추	아만추	어캉스	얼공	얼죽아	얼죽코
오늘아눔	요도족	유캉스	옴차	이못싸	인만추
자만추	적일뿔버	존모	투알못	파잘알	편디족
편샬족	피뿔탈	피성안	행덕	혼명족	혼카족

나) 줄임말 사용 여부 조사

「2019년 신어 조사」 보고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에 등장한 신어를 조사하고 신어의 어휘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2019년 7월 이후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에서는 어떤 신어(줄임말)가 사용되는지 추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해 줄임말 46개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집한 줄임말 목록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최근에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한 46개의 줄임말

갑통알	겉바속촉	고치돈	금사빠	꾸안꾸	답정너
따아	마상	말또서	말잇못	맛잘알	떡빵
미방	반모	별다줄	복세편살	비담	빠태
사강	사마사	소확행	시강	심쿵	숨튼명
시빠테	아바라	아아	안물안궁	엄근진	오저치고
오추메	웃프다	음방	인강	제곧내	젓잘싸
지못미	지옥고	집콕	취존	낄끼빠빠	팬아저
뽕러뷰	뽕카	뽕하	할많하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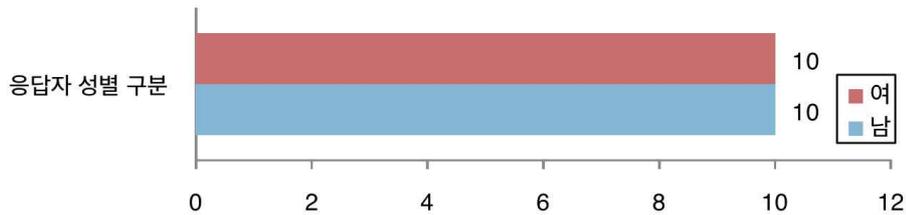
기초 자료에서 수집한 줄임말과 대중 매체에서 수집한 줄임말 140개 항목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google)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참여 현황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통계를 위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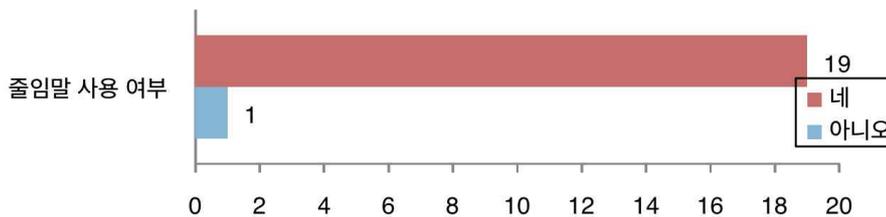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모두 20대인 한국인 모국어 화자이다. <표 10>처럼 지금

까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0명인데 성비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이다. <표 11>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줄임말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19명의 응답자가 ‘네’라고 답하였고, 한 명만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일상생활에서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 응답자 성별 구분



<표 11> 줄임말 사용 여부



2) 설문조사 항목의 응답 현황

줄임말의 사용 빈도를 통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에 ‘귀하는 다음 문항에 제시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란 질문 밑에 140개 항목의 줄임말과 원어를 함께 제시하였다²⁸⁾. 그리고 각 줄임말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가지 선택 항목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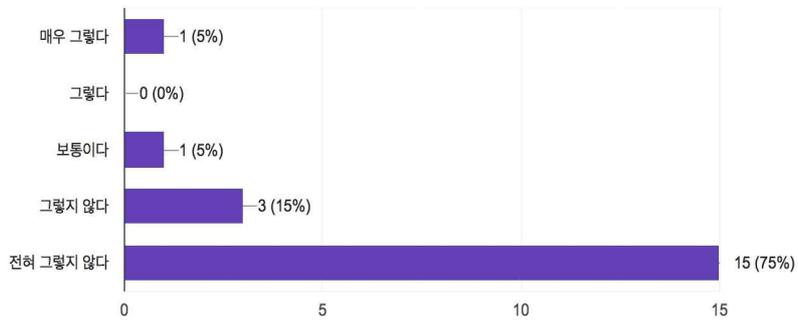
28) 설문지의 줄임말 조사 항목 중 1번에서 40번까지는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 수집한 줄임말이며, 41번에서 94번까지는 「2019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 수집한 줄임말이다. 95번에서 140까지는 최근에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이다. 이상으로 <부록>에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택 항목별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의 합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줄임말 항목은 사용 빈도가 낮으므로 제외하였고, 남은 줄임말 항목을 교육용 어휘로 선정하였다. 제외한 목록과 선정된 목록 3개씩을 제시하면 다음<그림 5,6>과 같다.

<그림 5> 조사 결과에 따라 줄임말 선정에서 제외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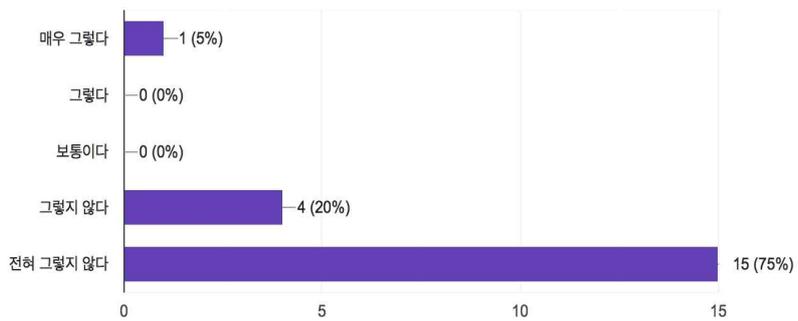
12) 막페인 ('막걸리'+‘샴페인’, 샴페인처럼 탄산이 들어 있는 막걸리)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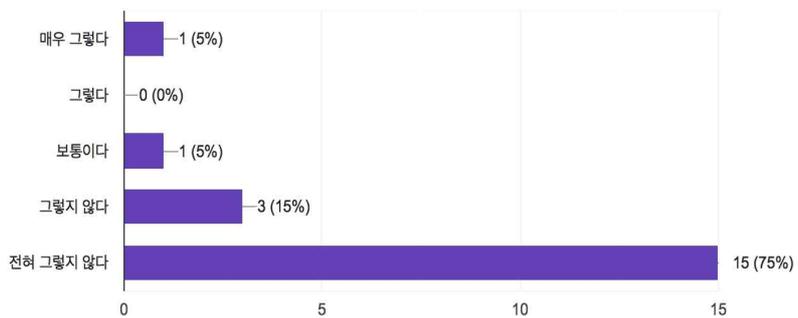
68) 소피커 ('소신'+‘소피커(speaker)’, 누구에게나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

응답 20개



132)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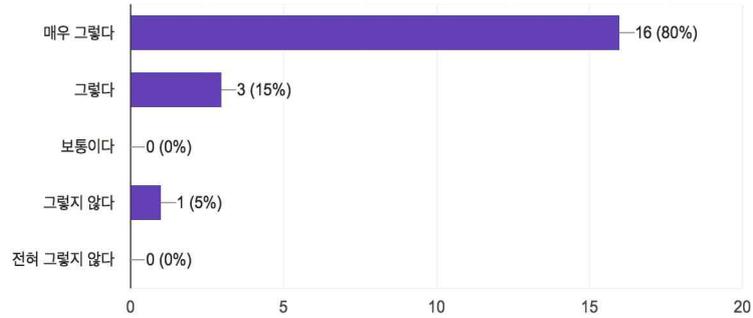
응답 20개



<그림 6> 조사 결과에 따라 줄임말로 선정된 목록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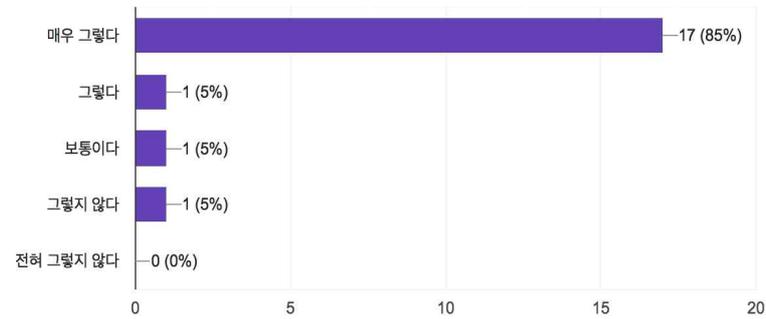
5)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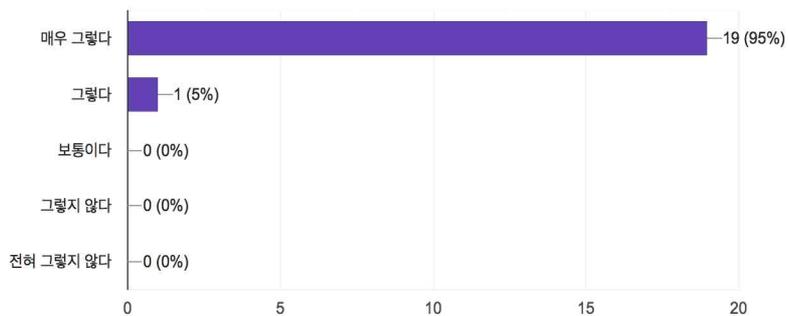
98)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

응답 20개



121)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응답 20개



이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을 제외한 줄임말 선정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 수집한 줄임말 중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
낸 항목

- (1) 가성비템: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좋은 아이템
- (2)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 (3) 멘찢: 멘탈이 찢어짐.
- (4)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 (5) 여행잘알: 여행에 대해 잘 아는 사람
- (6) 연포자: 연애 포기자
- (7) 운알못: 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 (8) 코노: 코인 노래방
- (9) 혼코노: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감

나) 「2019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 수집한 줄임말 중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
낸 항목

- (1) 갑분띠: 갑자기 분위기 띠용
- (2) 만반잘부: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함
- (3) 믿거: 믿고 거르다
- (4) 믿쓰템: 믿고 쓰는 아이템
- (5) 얼공: 얼굴 공개
- (6)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 (7)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함

다) 최근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 중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낸 항목

- (1) 걸바속촉: 걸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 (2) 고치돈: 고구마 치즈 돈가스
- (3)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
- (4) 꾸안꾸: 꾸민듯 안 꾸민듯
- (5)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됨
- (6) 따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 (7) 마상: 마음의 상처
- (8) 말잇못: 말을 잇지 못함
- (9) 맛잘알: 맛을 잘 아는 사람
- (10) 먹방: 먹는 방송
- (11) 별다줄: 별것을 다 줄인다
- (12)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 (13) 비담: 비주얼 담당
- (14) 사강: 사이버 강의
- (15)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 (16)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 (17) 시장: 시선 강탈
- (18) 심쿵: 심장이 쿵 하고 뿔 정도로 놀라거나 설렘
- (19)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 (20)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 (21)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
- (22)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함
- (23) 옷프다: 옷기면서 슬프다

- (24) 음방: 음악 방송
- (25) 인강: 인터넷 강의
- (26) 제곧내: 제목이 곧 내용
- (27) 족잘짜: 족지만 잘 싸웠다
- (28)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 (29) 집콕: 집에 콕 박혀 있다
- (30) 취존: 취향 존중
- (31) 깔끼빠빠: 깔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 (32) 팬아저: 팬이 아니어도 저장
- (33) 핑하: 핑수 하이
- (34) 할많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라)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에서 추가로 수집한 줄임말

위의 항목 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란 빈칸에 응답자들은 ‘르즈ㄷ(레전드)’, ‘법카(법인 카드)’, ‘보이루(보이루의 초성)²⁹⁾’, ‘빠충(빠떼리 충전)³⁰⁾’, ‘어덕행덕(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존맛탱(‘좋은’과 ‘맛탱이’를 결합한 말)’, ‘팩폭(팩트 폭력)’, ‘TMI(Too Much Information)’, ‘OOTD(Outfit Of The Day: 오늘의 착장·패션)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비속어나 비표준어를 제외해 ‘르즈ㄷ(레전드)’, ‘법카(법인 카드)’, ‘어덕행덕(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TMI(Too Much Information)’, ‘OOTD(Outfit Of The Day: 오늘의 착장·패션) 5개의 항목을 교육용 목록에 추가하기로 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신어 조사」에서 선정된 줄임말 목록은 9개, 「2019년 신어 조사」에서 선정된 줄임말 목록은 7개로 보고서에 수록된 줄

29) ‘보이루’는 보검과 하이루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대형 인터넷 방송인 보검의 방송 용어이다.
30) ‘빠떼리 충전’의 표준어는 ‘배터리 충전’이다.

임말 신어가 많지만, 이 중 한국인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별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 중 34개가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이 신어 조사 보고서에 제시한 줄임말보다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 대중 매체에서 사용한 줄임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3. 교육용 줄임말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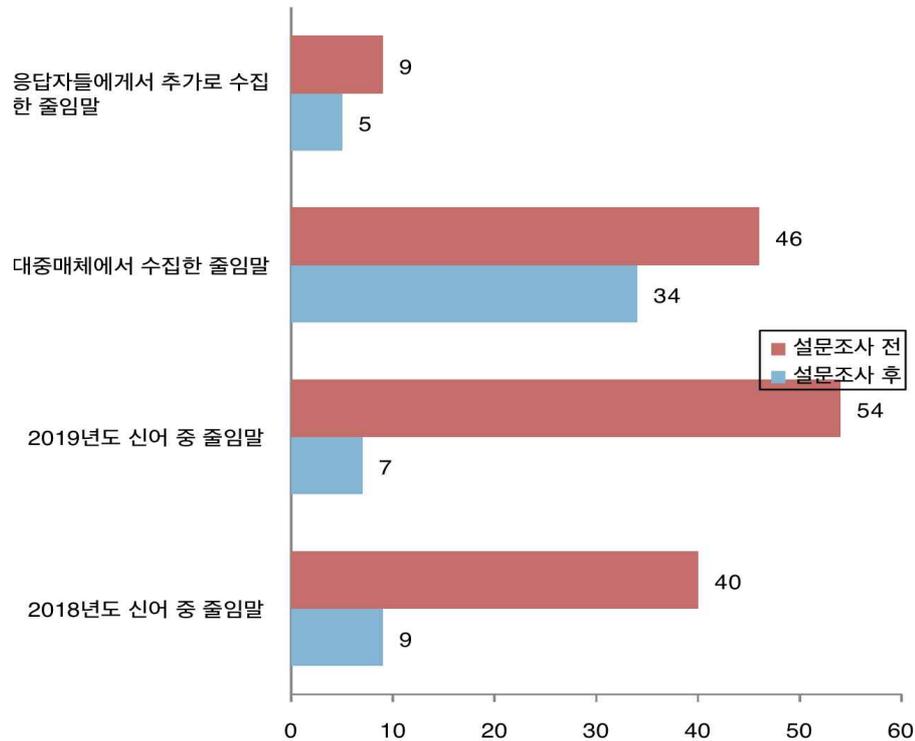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2018년 신어 조사」, 「2019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신어를 기초 자료로 줄임말 신어를 수집하였다. 1차 수집한 줄임말 신어들 가운데서 본 연구에 제시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94개를 선정하였다.

줄임말 신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기 전에 2019년 7월 이후 최근의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에 출현한 줄임말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추가 수집한 줄임말 46개와 신어 보고서에서 선정한 줄임말 신어 94개를 합쳐서 총 140개 항목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귀하는 다음 문항에 제시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란 질문 밑에 140개 항목의 줄임말과 원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줄임말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가지 선택 항목을 설정하여 140개 줄임말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택 항목별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의 합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줄임말 항목은 사용 빈도가 낮으므로 제외하였고, 남은 50개의 줄임말은 교육용 어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에서 수집한 줄임말 5개를 포함하여 총 55개의 줄임말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사용 빈도에 따른 줄임말 목록의 선정 결과



<표 12>와 같이 「2018년 신어 조사」에서 선정된 줄임말 목록은 9개, 「2019년 신어 조사」에서 선정된 줄임말 목록은 7개로 신어 보고서에 수록된 줄임말이 많지만, 이 중 한국인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은 총 34개가 선정되었다. 이 선정 결과를 통해 한국인 화자들이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줄임말보다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등 대중 매체에서 사용한 줄임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줄임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줄임말 어휘 55개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줄임말 최종 목록

2음절 줄임말	멘짚, 코노, 믿거, 얼공, 따아, 마상, 떡방, 비담, 사강, 시장, 심쿵, 아아, 음방, 인강, 집콕, 취존, 펙하, 법카
3음절 줄임말	갑분싸, 수부지, 연포자, 운알못, 혼코노, 갑분띠, 믿쓰템, 얼죽아, 자만추, 고치돈, 금사빠, 꾸안꾸, 답정너, 말잇못, 맛잘알, 별다줄, 사바사, 소화행, 아바라, 엄근진, 웃프다, 제곧내, 쫄잘싸, 지못미, 펜아저, 르즈ㄷ, TMI
4음절 줄임말	가성비템, 여행잘알, 만반잘부, 걸바속촉, 복세편살, 안물안궁, 길끼빠빠, 할말하얏, 어덕행덕, OOTD

<표 13>에 제시한 줄임말 목록 가운데 2음절 줄임말은 18개, 3음절 줄임말은 27개, 4음절 줄임말은 10개이다. 이 중 ‘코노, 따아, 얼공, 믿거’와 같은 2음절 줄임말은 대다수 명사구나 동사구에서 각 구성 단어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말이다. 3음절 줄임말 중 ‘연포자’처럼 혼성으로 명사구에서 앞 단어의 첫음절A, 뒷부분의 첫음절C와 마지막 음절E를 취하여 만들어진 말이 있고, ‘얼죽아’처럼 문장 단위에서 각 구성 어절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말이 있다. 그리고 ‘르즈ㄷ’처럼 단어에서 각 음절의 초성(첫자음)을 취하여 만들어진 말도 있다. ‘여행 잘알, 걸바속촉, 안물안궁’과 같은 4음절 줄임말 대부분이 문장 단위에서 축약이나 두음절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또한, <표 13>에 제시한 줄임말을 통해 ‘갑분싸’와 ‘갑분띠’, 그리고 ‘아아’, ‘따아’와 ‘아바라’ 등과 같이 서로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 교육에서

어휘를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어휘가 이루고 있는 관계망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주제와 연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현화(2004)에서는 어휘를 교육할 때 단편적이고 고립적인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 상위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어휘 목록을 제시해주는 것이 학습자의 기억망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해영(2006)에서는 교육용 어휘 목록은 학습 목적 및 주제 영역 등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문주(2013)에서는 주제 중심의 교육 방안을 작성하여 이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바 있다. 그 결과, 주제 중심의 어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필 평가의 점수뿐만 아니라 문장 형성의 능력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어휘 교육에서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최종 목록에 선정된 줄임말의 용례와 의미, 또는 문화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 분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2019년 신어 조사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4단계)」³¹⁾를 바탕으로 수정·활용한 주제 범주를 참조하였다. 「2019년 신어 보고서」에서는 일반어의 의미 영역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4> 2019년 신어 조사에서의 주제 분류 범주

대범주	소범주
인간	사람의 종류, 신체 내부 구성, 신체 부위, 생리 현상, 체력 상태, 용모, 감각, 감정, 태도, 성격, 능력, 신체 행위, 신체 변화, 인지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소리
삶	일상 행위, 삶의 상태, 삶의 행위, 가족 행사, 친족 관계, 여가

31) 국립국어원(2015)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4단계)」에서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 또는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체나 내용’,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과 조건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주제 범주를 분류한 바가 있다.

	도구, 여가 활동, 여가 시설, 병과 증상, 치료 행위, 치료 시설, 약품류
식생활	음식, 식재료, 곡류, 채소, 과일, 음료, 조리 도구, 맛, 식생활 관련 장소, 식사 및 조리 행위
의생활	장신구·모자·신발, 옷 종류, 옷의 부분, 옷감, 의생활 관련 장소, 의복 착용 행위, 의복 착용 상태, 미용 행위
주생활	건물 종류, 주거 형태, 주택 구성, 주거 지역, 주거 상태, 주거 행위, 가사 행위, 생활 용품
사회생활	사회생활 상태, 사회 활동, 사회 행사, 인간관계, 직장, 직위, 직장 생활, 직업, 교통 수단, 교통 이용 행위, 교통 이용 장소, 소통 수단, 매체, 말, 언어 행위
경제생활	경제 행위 장소, 경제 행위 주체, 경제 수단, 경제 상태, 경제 산물, 경제 행위
교육	교육 기관, 전공과 교과목, 교수 학습 주체, 학교 시설, 학문 용어, 학습 관련 사물, 학문 행위, 교수 학습 행위
종교	종교인, 신앙 대상, 종교어, 종교 유형, 종교 활동 장소, 종교 행위, 종교 활동 도구
문화	문학, 음악, 예술, 미술, 문화 활동 주체, 대중 문화, 문화생활 장소, 전통 문화, 문화 활동
정치와 행정	무기, 정치 및 행정 주체, 공공 기관, 사법 및 치안 주체, 정치 및 행정 행위, 정치 및 치안 상태, 사법 및 치안 행위
자연	자원, 지형, 재해, 천체, 지표면 사물, 기상 및 기후

동식물	동물의 부분, 곤충류, 동물류, 식물의 부분, 식물류, 동물 소리, 동식물 행위
개념	수, 양, 순서, 정도, 빈도, 모양, 속도, 성질, 밝기, 색깔, 온도, 세는 말, 시간, 지역, 위치 및 방향, 접속, 지시, 인칭, 의문
통신 및 게임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인터넷 활동, 게임 활동, 게임 아이템, 휴대 전화

2019년 신어 조사에서는 일반어의 의미 영역 분류를 위해서 국립국어원(2015)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4단계)」의 의미 범주를 <표 14>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고 밝혔으며, 일반어의 주제 범주를 ‘인간, 삶,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종교, 교육, 문화, 정치와 행정, 통신 및 게임, 자연, 동식물, 개념’의 15가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범주를 활용하여 선정된 목록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줄임말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인 줄임말 주제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범주 ‘인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감각과 감정, 사람의 외모 및 표정에 관련한 의미를 가진 줄임말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심쿵, 웃프다, 멘찢, 마상’이 이에 해당하였다. ‘수분 부족형 지성’을 뜻하는 줄임말 ‘수부지’는 사람의 피부 타입을 말하는 것이고, ‘시강, 비담, 꾸안꾸’는 사람의 외모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엄격하다’, ‘근엄하다’, ‘진지하다’를 아울러 이르는 ‘엄근진’은 사람이 표정의 변화가 없이 냉정함을 유지하는 표정을 나타내므로 ‘인간’에 분류하였다.

대범주 ‘삶’ 주제에는 삶의 상태 및 삶의 방식, 그리고 여가 생활과 관련한 줄임말을 분류하였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뜻하는 ‘복세편살’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삶’에 분류하였다. ‘코노, 혼코

노, 여행잘알, 어덕행덕, 팬아저, 음방, 운알못, 집콕'은 다양한 여가 생활을 나타내므로 '삶'에 포함하였다.

'사회생활' 주제에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낄끼빠빠, 만반잘부, 자만추, 답장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는 '취존', 사회생활의 상태를 나타내는 '연포자'가 포함되었다.

'경제생활' 주제에는 경제 행위와 결제 방법과 관련한 줄임말을 분류하였다.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좋은 물건'을 뜻하는 '가성비템', '믿고 거름'의 뜻하는 '믿거', '믿고 쓰는 아이템'을 뜻하는 '믿쓰템', 그리고 '법인 카드'를 의미하는 '법카'가 이에 해당하였다.

'식생활' 주제에는 음식 및 음료에 관한 '고치돈, 따아, 아아, 아바라'와 맛에 관한 표현인 '겉바속촉', 식사 행위에 대한 표현인 '얼죽아'가 이에 분류되었다. 이외에 음식에 대해 '맛을 잘 안다'를 뜻하는 '맛잘알'도 '식생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의생활' 주제에는 OOTD(Outfit Of The Day)로 오늘의 의복 착용 상태를 나타내는 줄임말을 분류하였다.

'교육' 주제에는 요즘에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강, 인강'과 같은 교수 학습 행위에 관한 줄임말을 분류하였다.

<표 14>의 '통신 및 게임'이란 주제를 '인터넷 및 통신'으로 수정하여, 인터넷에서 쓰이고 있는 줄임말 및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줄임말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레전드'의 초성을 취하여 만들어진 'ㄹㄸㄸ', 유튜브에 <자이언트 팽TV>의 주인공 팽수의 인사말인 '팽하', 네티즌들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출전 선수들에게 응원하는 말에서 생긴 '졌잘싸', 인터넷에서 '얼굴공개'를 의미하는 '얼공',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할 때 쓰이는 '제곧내',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시작되었던 '먹방'이 이에 속하였다. 한편, '갑분싸, 갑분띠, 금사빠, 지못미, 말잇못, 안물안궁, 할말하얏, TMI, 별다줄'과 같은 줄임말은 언어의 경제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줄임말은 SNS

상으로, 또는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채팅할 때 많이 쓰이므로 ‘인터넷 및 통신’ 범주에 분류하였다.

줄임말 교육을 위한 주제별 분류 최종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5> 줄임말 선정 목록 주제별 분류

범주	항목
인간	꾸안꾸, 마상, 멘짖, 비담, 수부지, 시강, 심쿵, 엄근진, 옷프다
삶	복세편살, 소확행, 어덕행덕, 여행잘알, 운알못, 음방, 집콕, 코노, 팬아저, 혼코노
사회생활	낄끼빠빠, 답정너, 만반잘부, 연포자, 자만추, 취존
경제생활	가성비템, 믿거, 믿쓰템, 법카
식생활	겉바속촉, 고치돈, 따아, 맛잘알, 아바라, 아아, 얼죽아
의생활	OOTD
교육	사강, 인강
인터넷 및 통신	갑분떠, 갑분싸, 금사빠, 르즈ㄷ, 말잇못, 떡방, 별다줄, 안물안궁, 얼공, 제곧내, 겹잘싸, 지못미, TMI, 팽하, 할말하않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교육용 줄임말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주제별로 분류한 줄임말을 확인해보면 ‘인간’ 및 ‘삶’, ‘사회생활’과 ‘식생활’ 항목에서 줄임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및 통신’ 항목에서 줄임말이 가

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이후 새로운 사회 문화의 형성,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새로운 감정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줄임말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증가와 언어의 경제성 또는 유희성의 추구로 인해 줄임말의 생성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줄임말에는 새로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따른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의 언어생활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주제별 분류 목록을 활용하여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줄임말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줄임말의 교수 방안

이장에서는 주제별 줄임말 교육 목록을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줄임말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O-H-E’, ‘P-P-P’, ‘플립드 러닝’ 세 가지의 수업 모형을 통해 줄임말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4.1. ‘O-H-E’ 방법론을 활용한 교수 방안

먼저 어휘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O-H-E’ 방법론을 활용하여 줄임말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O-H-E’ 방법론은 Lewis(1993)에서 논의한 ‘(Observation(관찰) - Hypothesis(가설) - Experiment(실험))’ 과정을 바탕으로 한 언어 학습 이론이다. 이종은(2005)에서는 Lewis(1993)는 ‘O-H-E’ 과정에 대해 간단히 한 줄로 언급된 것에 그치며 실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이론과 연결 짓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지와 인식(Noticing, Language Awareness)’의 언어 학습 원리를 첨가하여 ‘O-H-E’ 교수 방법을 다음 <표 16>과 같이 발전시켜 제시하였다.

<표 16> ‘O-H-E’ 교수 방법론 (이종은, 2005:52)

단계		특징
관찰 (Observation)	인식·인지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항목의 통합적 학습 • 학습자 중심 • 하향식(top-down) 접근 •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 과정 중시 • 언어사용과 유창성에 초점 • 과제중심, 내용 중심, 코스 중심의 교수-학습
가설 (Hypothesis)	발견·관찰을 위한 과제	
실험 (Experiment)	시도·탐구를 위한 과제	

<표 16>에서 제시한 것처럼 ‘O-H-E’ 교수 모형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이며, 학습자들의 개념과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O-H-E’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학습자들이 다양한 형식의 학습 자료(사진, 미디어 영상, 구어나 문어 말뭉치 자료 등)를 통해 줄임말을 인식하고, 줄임말의 실현 양상 및 생성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관찰(Observation) 단계를 거친다. 다음으로 실제 담화 맥락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줄임말의 뜻을 추측하고, 생성 규칙과 적절한 사용 방법을 분석해서 내재화 시키는 가설(Hypothesis)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실험(Experiment) 단계를 거쳐서 학습자들이 앞 단계에서 배운 줄임말 지식과 한국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실제 담화 맥락에서 줄임말을 적용해 의사활동을 진행하게 한다. ‘O-H-E’ 교수 모형의 단계별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O-H-E’ 교수 모형의 3가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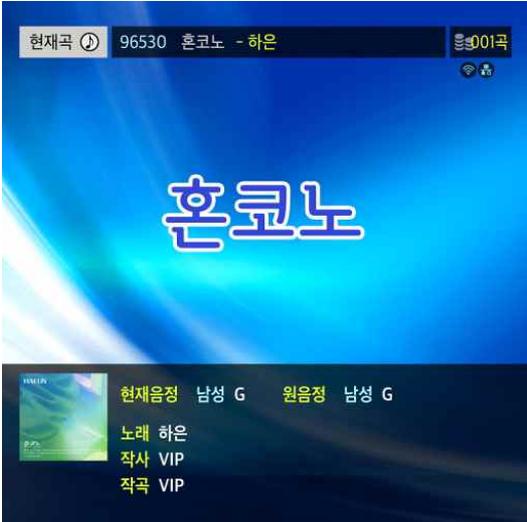
관찰 단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줄임말의 실현 양상 및 생성 특징을 활성화한다.
가설 단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줄임말의 뜻을 추측하고, 줄임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실험 단계	줄임말을 활용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O-H-E’ 교수 모형을 활용하여 ‘관찰단계(Observation) → 가설단계(Hypothesis) → 실험단계(Experiment)’의 수업 지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 18> 'O-H-E' 수업 모형을 활용한 수업 지도안

학습 목표	줄임말 학습을 통해 줄임말과 생성 유형 및 사용 양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담화 맥락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제 제시	'인간'과 '삶' 주제에 해당하는 줄임말을 알아보자.	
학습 어휘	꾸안꾸, 마상, 멘짚, 비담, 시강, 심쿵, 엄근진, 옷프다, 복세편살, 소확행, 어덕행덕, 여행잘알, 운알못, 음방, 혼코노	
학습 대상	중·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 시간	70분	
교육 단계	학습 내용	준비물 및 유의점
관찰 단계	<div data-bbox="560 913 1026 1261" data-label="Image"> </div> <p>마상(마傷) ← 마음의 상처' (명사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상'은 명사구 '마음의 상처'의 각 어절의 첫음절을 취하여 만들어진 줄임말이다. ▶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경우, '마상을 입었다, 마상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줄임말 지식을 활성화한다. ▶ 20'

	<div data-bbox="587 271 1042 611" style="border: 2px solid yellow;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오잉, 이게 무슨 말이지? “팬아저” 정답은 팬이 아니어도 저장 가능 </div> <p style="text-align: center;">‘팬아저(fan아貯) ← 팬이 아니어도 저장(가능)’ (문장)</p> <p>▶ ‘팬아저’는 문장 단위에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줄임말이다.</p> <p>▶ ‘팬아저’는 팬이 아니어도 아이돌의 돋보이는 비주얼이나 매력 넘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 것이다. ‘팬아저’는 한류 열풍과 아이돌 문화를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며, 이는 ‘음방(음악 방송)’ 등과 같이 사람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출처: https://m.blog.naver.com/kwejo/221433388820</p> <p style="text-align: center;">‘웃푸다 ← 웃기면서 슬프다’</p> <p>▶ ‘웃푸다’는 ‘웃기면서 슬프다’는 뜻으로, 주로 표면적으로는 웃기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여 슬프다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p>	
가설 단계	<p>예)1. 편강한방연구소측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전 녹용 복세편살(複世便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물량을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워낙 수요가 급증해서 품절이 됐다.”...고 밝혔다. 32)</p> <p>▶ 위의 신문 자료를 통해 줄임말의 뜻을 추측하고 줄임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비슷한 삶의 경향을 나타내는 ‘소확행(小確幸)’의 뜻을 추측하게 한다.</p> <p>예)2. 다음 중 ‘꾸안꾸’의 쓰임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을</p>	<p>▶ 새로운 자료를 통해 줄임말의 뜻을 추측하고, 줄임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p> <p>▶ 30’</p>

	<p>고르세요³³⁾.</p> <p>a. 꾸안꾸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지 b. 귀여울 때는 꾸안꾸! c. 그래서 나한테 돈을 꾸안꾸? d. 고기 구울 때 나는 꾸안꾸가 딱 좋아.</p> <p>예)3. 사람의 감각을 표현하는 ‘멘짚(mental짚)’, 심쿵(心쿵), 외모를 표현하는 ‘비담(visual담)’, ‘시강(視強)’, 그리고 표정을 나타내는 ‘엄근진(嚴謹眞)’ 등을 보고 줄임말의 원어형을 추측하고 문장을 만들어보게 한다.</p>	
<p>실험 단계</p>	 <p>사진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04302&memberNo=43763216&vType=VERTICAL</p> <p>‘혼코노(혼coin노) ←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감’ (문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코노’는 문장 단위에서 축약에 의해 만들어진 줄임말이다. ▶ ‘혼-’과 결합한 다른 줄임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혼자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 자신이 즐기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에 대해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임말을 활용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 20’

32) 스포츠W, 2020년, 1월, 27일.

4.2. ‘P-P-P’ 방법론을 활용한 교수 방안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언어 교육이 강조되면서 ‘P-P-P’ 방법론은 널리 유행되며 강력한 교수법으로 자리를 유지해 왔다. 전통적인 ‘P-P-P’ 방법론은 Byrne(1968)에서 논의한 영어교육 수업 모형 중 하나이고 학습 절차는 ‘Presentation(제시), Practice(연습), Production(생산)’ 순서로 진행한다.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연습이나 과제 활용이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교육에서도 이 방법론을 많이 활용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P-P-P’ 교수 방법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과 같다.

<표 19> ‘P-P-P’ 교수 방법론(이종은, 2005:49)

단계		특징 및 문제점
제시 (Presentation)	교사의 설명과 제시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교수항목의 분리학습 • 교사 중심 • 상향식(bottom-up) 접근 • 언어지식과 정확성에 초점 •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 과정 결여
연습 (Practice)	통제된 연습	
생산 (Production)	의사소통과 연결지은 과제 시도: 교수항목의 중점적 사용 요구	

<표 19>의 제시한 바와 같이 이종은(2005)에서는 ‘P-P-P’ 교수 방법론의 경우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의 개념 이해와 인지 과정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상향식 접근 방식이므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언어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통해서 학습할 수가 없다고

<http://www.sportsw.kr/news/newsviw.php?ncode=1065591359829929>

33) 네이버 신조어 퀴즈.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P-P-P’ 교수 모형을 다음 <표 20>과 같이 보완하였다.

<표 20> ‘P-P-P’ 교수 모형의 5가지 단계

도입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줄임말이란 언어 체계는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유행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2. 교사가 오늘 학습할 줄임말 어휘에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를 제시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줄임말의 뜻을 맞춰보도록 한다. 	<p>▶ 학습자들에게 줄임말에 대해 스스로 추측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p>
제시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줄임말 자료를 통해 그 뜻을 확인하고, 줄임말의 생성 규칙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줄임말 관련 뉴스나 방송 등을 통해 줄임말의 사용 양상을 확인한다. 	<p>▶ 줄임말의 생성 방식을 칠판에 적는다.</p>
연습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듣기 활동: 교사가 새로운 줄임말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따라 읽으며 뜻을 유추하게 한다. 2. 쓰기 활동: 줄임말의 뜻과 원어를 유추해 본 후 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p>▶ 듣기, 쓰기 활동을 진행한다.</p>
활용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하기 활동: 학습자들에게 활동 시간을 주고 제한시간 내에 조별로 자유롭게 대화 단락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2. 제한시간 내에 만들어진 대화 단락을 상황극처럼 조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p>▶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하기 연습을 진행하면서 과제 활동을 한다.</p>
정리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늘 배운 줄임말 어휘를 다시 정리하면서 한국어 줄임말이나 신어에 대해 생각해본다. 2. 다음 시간에 모국어에 존재하는 줄임말을 찾아보고 발표하도록 한다. 	<p>▶ 줄임말이나 신어 사용 현상에 대한 생각을 말해본다.</p>

--	--	--

<표 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완한 ‘P-P-P’ 교수 모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도입 단계에는 교사가 줄임말의 언어 체계와 형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후 오늘 학습할 줄임말 어휘와 관련된 사진이나 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줄임말의 뜻을 추측하게 한다. 다음으로 줄임말의 본말과 그 생성 양상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줄임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는 실제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해서 줄임말 어휘를 교육할 수 있다.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줄임말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줄임말을 ‘듣고 유추하기’, ‘문장을 만들어 쓰기’의 활동을 진행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조별로 활동 시간을 주고 제한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줄임말을 이용해 대화 단락을 만들어 상황극처럼 발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는 교사가 오늘 배운 줄임말 어휘를 다시 정리하면서 학생들에게 현 시대에 만들어진 줄임말이나 신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낸다.

보완한 ‘P-P-P’ 교수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줄임말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한 수업 지도안

학습 목표	줄임말 학습을 통해 줄임말과 그 생성 유형 및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화 맥락에서 줄임말을 사용할 수 있다.
주제 제시	‘인터넷 및 통신’ 주제에 해당하는 줄임말을 알아보기.
학습 어휘	갑분싸, 금사빠, 르즈드, 말잇못, 먹방, 별다줄, 안물안궁, 얼공, 제곧내, 쫄잘싸, 지못미, TMI, 펑하, 할말하얏
학습 대상	중·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 시간	70분

수업 단계	학습 내용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단계	<p>1. 줄임말은 인터넷의 발달과 언어의 경제성 및 유희성의 추구로 인해 만들어지며, 다양한 생성 양상이 존재함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한다.</p> <p>2.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를 제시한다.</p>  <p>사진 출처: 네이버 포스트</p> <p>예) ‘TMI’는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 보기.</p>	<p>▶ 학습자들에게 줄임말에 대해 스스로 추측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p> <p>▶ 10’</p>
제시 단계	<p>1. 오늘 학습할 줄임말 어휘를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한다.</p> <p>2. 줄임말의 본말과 그 생성 양상을 확인한다.</p> <p>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짐. 르즈르: 레전드(초성). 말잇못: 말을 잇지 못함. 별다줄: 별것을 다 줄임. 안몰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 제곧내: 제목이 곧 내용임.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 할말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음.</p>	<p>▶ 교사가 줄임말의 생성 방식을 칠판에 적는다.</p> <p>▶ 15’</p>

	<p>3. 새로 배운 줄임말 어휘와 관련된 뉴스나 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줄임말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p>	
연습 단계	<p>1. 듣기 활동: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듣기 활동을 한 후, 영상 자료(자막)를 보고 줄임말을 확인한다.</p> <p>2. 쓰기 활동: 다음은 줄임말을 활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기.</p> <p>예) ‘먹방’: 먹는 방송. _____ ‘얼굴’: 얼굴 공개. _____ ‘젓잘싸’: 젓지만 잘 싸웠음. _____</p>	<p>▶ 듣기 자료(4분 30 - 42 초) : https://www.youtube.com/watch?v=Qj2DYNju4Qo 듣고, 쓰기 활동을 진행한다.</p> <p>▶ 20’</p>
활용 단계	<p>1. 2명씩 조를 만들어서 제한시간 내에 조별로 자유롭게 대화 단락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p> <p>2. 만들어진 문장을 상황극처럼 발표하도록 한다.</p> <p>3. 다음 중 ‘햅햅’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³⁴⁾</p> <p>a. 뽀로로 b. 햅수 c. 햅구 d. 햅햅이</p> <p>(줄임말 퀴즈를 풀고 햅수 사진을 보여준다.)</p>	<p>▶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업 활동과 줄임말 퀴즈를 풀어본다.</p> <p>▶ 20’</p>

		
정리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늘 배운 줄임말 어휘를 다시 정리하면서 한국어 줄임말이나 신어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다음 시간에 모국어에 존재한 줄임말을 찾아보고 발표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스스로 줄임말이나 신어 사용 현상에 대한 생각을 말해본다. 다음 시간에 모국어의 줄임말과 비교하도록 한다. ▶ 5'

4.3.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교수 방안

마지막으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바탕으로 한 줄임말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플립드 러닝의 이론적 배경으로 EDUCAUSE(2012)에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은 Jonathan Bergmann과 Aaron Sams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전형적인 수업 과정을 ‘뒤집는(flipped)’ 형태의 학습 모델이라고 하였다. Hamdan 외(2013)에서는 플립드 러닝은 전통적인 수업 활동의 ‘역으로’ 혹은 ‘거꾸로’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 수업 모형에 의하면 교사가 수업에서 강의할 내용을 동영상(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학습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에서 학습해오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사전에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 토론, 퀴즈 등의 활용을 진행하도록 한다.

34) 네이버 신조어 퀴즈.

즉, 플립드 러닝이란 ‘뒤집힌 수업’, ‘거꾸로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수업 모형에서는 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자가 공부할 지식을 선행학습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고, 수업 시간은 학습자 개인이나 조별,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플립드 러닝’ 학습 모델을 적용한 줄임말 수업 지도안은 ‘수업 전 (on-line) - 수업 중 (off-line) - 수업 후 (on-line)’ 활동의 구조로 아래 <표 22>와 같이 구성한다.

<표 22> ‘플립드 러닝’ 적용한 수업 지도안

학습 목표	줄임말과 그 생성 유형 및 사용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사소통할 때 줄임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대상	중·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교사중심 수업	활동 내용	상호작용	
		주체	온/오프
수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줄임말 선행학습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15분 내)하거나, 줄임말 학습 내용 관련 미디어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 사이트에 올린다. 	개인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는 선행학습의 강의 동영상이나 미디어 자료를 학습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노트에 작성한다. 		
수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줄임말의 생성 원인과 줄임말의 개념, 사용 양상, 생성 방식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강의한다. 온라인 선행학습의 강의 자료에 제시한 줄임말에 대한 확인 학습 퀴즈를 한다. 수업 시간에 개인이나 조별 연습 문제를 내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개인/조별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는 교사의 강의 내용에 따라가며 강의를 듣고 노트에 작성한다. 개인이나 조별 수업 활동을 참여하고, 선행학습 		

	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수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수업 후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를 평가한다. • 교사는 사전에 온라인에 올린 강의 자료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한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줄임말 강의 사항, 그리고 수업 후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에서 발견한 어색한 줄임말 사용들에 대한 피드백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줄임말 강의 동영상상을 녹화하거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수업 사이트에 올린다. 	개인/조별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 그리고 교사가 수업 후에 추가적으로 올린 강의 자료를 한번 더 학습한다. 		

<표 22>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플립드 러닝 수업 모델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할 지식 관련 선행학습의 동영상 강의나 미디어 자료들을 준비하고 수업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교사의 주요 역할은 강의 현장에서 설명, 질의응답, 과제 제시 등 수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행자이다. 그리고 본시 수업 후 교사는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를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추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은 수업 모델은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 전 선행학습을 동영상이나 미디어 자료로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어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업 전(온라인)

예습 내용:

[\[MBC 특집 '말의 온도'\] 예능 속 신조어, '불통의 아이콘 VS 언어 유희'](#)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 속의 줄임말과 그 뜻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교사는 수업 전에 직접 15분 내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위와 같은 줄임말 관련 미디어 자료를 사전에 수업 사이트로 업로드한다. 학습자들은 수업 사이트에 올린 학습 자료를 시청하고 줄임말의 유형과 사용 양상을 학습한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줄임말의 생성 원인과 줄임말의 개념, 또는 다양한 예를 통하여 줄임말의 사용 양상과 생성 방식에 대해 강의한다. 그리고 선행학습 강의 자료에 제시한 줄임말 확인 학습 퀴즈를 진행한다. 이후 수업 시간에 개인이나 조별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강의 내용을 따라가며 줄임말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개인이나 조별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는다. 교사는 사전에 업로드한 자료와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한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강의 사항 및 수업 후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에서 발견한 어색한 줄임말 표현들에 대한 피드백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줄임말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수업 사이트로 업로드한다. 학습자들이 수업 사이트에 업로드한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배운 줄임말 지식을 다시 한번 학습하고 피드백을 확인하는 것으로 줄임말 어휘 학습 강의는 마무리 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줄임말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 주제별 분류 목록을 활용하여 줄임말 교육 방안을 구성하고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 모국어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줄임말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신어 자료집을 기초 자료로 하여 줄임말을 추출하였다. 기초 자료에서 추출한 줄임말과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한 줄임말로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용 빈도가 높은 줄임말을 교육 목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한 목록을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이를 활용한 3가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에 대하여 지식 습득이 낮은 편인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줄임말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줄임말 어휘의 생성 방식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능력 및 어휘력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그리고 그 동안의 줄임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줄임말 관련 용어들의 개념, 줄임말의 형성법과 유형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서 ‘줄임말’을 사용하였고, 이는 ‘단어, 구절, 또는 문장의 언어 단위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나 본래의 형태보다 간략한 형태로 줄어든 말이며, 본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본말과 자유롭게 상호 교체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재정의하였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줄임말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어 자료 보고서를 PDF 파일로 받았다. 하여,

받은 신어 자료 보고서들 중 「2018년 신어 조사」와 「2019년 신어 조사」에 수록된 776개의 신어를 기초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신어 자료 보고서에서 수록된 신어 중 줄임말을 수집하여 본 연구에 제시한 어휘 선정 기준에 맞는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중 매체에서 사용한 줄임말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총 140개의 줄임말로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줄임말 55개를 교육용 목록으로 선정하였고, 선정한 목록을 또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제별 줄임말 목록을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세 가지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언어 교육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O-H-E’ 방법론과 ‘P-P-P’ 방법론을 활용하여 줄임말 수업 지도안을 새로 구성하였으며, ‘거꾸로 학습’ 모델인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줄임말 수업 지도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기존 교재 분석으로 선정된 줄임말 어휘 자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임말 어휘를 수집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줄임말 목록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 화자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줄임말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에 조사된 줄임말 신어를 기초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이 고빈도로 사용하는 줄임말 말뭉치를 많이 수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줄임말 교육에 초점을 두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O-H-E’, ‘P-P-P’, ‘플립드 러닝’을 적용 세 가지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직접 구현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여 줄임말 목록을 수집하고 줄임말 교육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줄임말 교육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 강현화(2004), 「한국어 회화 교재에 나타나는 어휘 분석」, 『비교문화연구』 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 131-156.
- 강 혼(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줄임말에 대한 대조 연구 -한국어 줄임말과 중국어 약어 대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백희(2018), 「한국어 교육에서 신어 교육의 필요성 -Flipped Learning을 이용한 신어교육 방안-」, 『동남어문논집』 Vol.1 No.46, 동남어문학회, pp. 5-38.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탐출판사.
- 노슬기(2014), 「한국어교육용 신어 선정 및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영림(2017),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신언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원영·김의수·김숙정(2007), 「‘본말·준말’류에 대한 재고: 사전의 어휘 관계 기술을 위하여」, 『한국어학』 Vol.37, 한국어학회, pp. 277-301.
- 도파(2011), 「한국어 축약어의 교육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루쿤(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약어(略語) 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철우(2011), 「국어 줄임말 유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新語)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Vol.33, 국어학회, pp. 295-325.
- 박선옥(2017), 「줄임말의 형태적 구조와 생성 동인 분석 연구」, 『동악어문학』 Vol.70, 동악어문학회(구, 한국어문학연구학회), pp. 97-123.
- 박재연(2017), 「한국어 줄임말 비어의 어휘론과 화용론」, 『한국어 의미학』 Vol.56, 한국어 의미학회, pp. 161-188.
- 변시내(2010), 「신조어의 조어법과 한국어 교수 방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상규(2009),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성세행(2017), 「한국어에 나타나는 줄임말과 중국어 약어(略語)의 음절 규칙 대조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1993), 「준말에 대한 형태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Vol. 23 No.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 25-49.
- 우가민(2012), 「한국어 준말에 대한 교육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민섭(1974), 「略語의 한 考察」, 『語文論集』 Vol.9, 중앙어문학회, pp. 69-79.
- 이대현(2016),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토의·토론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주(1988), 「國語 略語形에 대한 研究」, 『論文集』 Vol.12-1, 漢城大學校, pp. 123-151.
- 이승명(1987), 「국어 준말의 형태와 구조」, 『국어국문학논총 : 장태진 박사 회갑 기념』, 삼영사, pp. 201-221.
- 이재현(2005), 「현대 국어의 축소어형에 관한 연구 - 축소어형과 준말의 정의, 축소어형의 조어법을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Vol.17, 한민족문화학회, pp. 375-401.
- 이종은(2005),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김영환·김영배(2014),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교육공학연구』 Vol. 30 No. 2, 한국교육공학회, pp. 163-191.
- 이지양(2003), 「국어 준말의 성격」, 『성심어문논집』 Vol.25, 성심어문학회, pp. 285-316.
- 이지은(2011), 「한국어에 나타나는 줄임말의 음절 규칙 연구 - 일본어 줄임말의 음절 비교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 41-59.
- 이충우(1994), 「제효이용주교수 정년퇴임 기념특집호 : 발간사」, 『국어교육학연구』 Vol.4 No.1, 0-0(1쪽).
- 이호영(2015), 「한국어 준말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2006), 「한국어 교재를 위한 어휘 및 문법 학습 활동 유형」,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 Vol.31 No.-,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
25-56.
- 이희자(1997), 「‘준말’과 ‘준꼴’과 ‘줄인 꼴」, 『사전편찬학연구』 Vol.7,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원.
- 임옥정(2016), 「한국어 약어 유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옥이(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줄임 표현 연구: 유형 분류와 교육
목록 선정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광군(2003), 「어휘교육에서의 약어 교육 - 한자어 약어를 중심으로- 」, 『한
국(조선)어교육연구』 Vol.1,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pp.
393-407.
- 장염옥(2006), 「한·중 한자어 약어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근용(1998a), 「현대 국어의 약어 연구: 자른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근용(1998b), 「현대 국어의 약어 연구: 자른말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
육』 20-1, 청람어문학회, 97-135.
- 정재은(2015), 「한국어교육에서 TV 뉴스를 활용한 신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용(2000),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 진보라(2016), 「한국어 교육용 준말 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문주(2013), 「생활과학과 주제중심 영어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영어 어휘력 향
상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최수민(2005), 「준말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진(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신어 연구: 한국어 문화 교육과의 연계를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강(2016a), 「줄임말의 실현 양상」, 『한국어 의미학』 Vol.53, 한국어문학
회, pp. 25-48.

- 최형강(2016b), 「방송 프로그래밍의 줄임말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줄임말」, 『어문학』 Vol.133, 한국어문학회, pp. 33-62.
- 최형용(2003),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Vol.135, 국어국문학
회, pp. 191-220.
- EDUCAUSE(2012), 7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Flipped Classrooms. EDUCUASE Learning Initiative February 2012. Retrived December 6, 2013 from <http://net.educause.edu/ir/library/pdf/eli7081.pdf>.
- Hamdan, N., Mcknight, P., Mcknight, K., & Arfstrom, K. M. (2013), The flipped learning model: A white paper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itled a review of flipped learning. Retrieved December 12, 2013 from http://researchnetwork.pearson.com/wp-content/uploads/WhitePaper_FlippedLearning.pdf.
- Michael(1993),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ondon.
- Tomlinson, Betal.(2003), "Ten Questions about Language Awareness", ELT Journal, 57(3), pp. 251-259.

<신어 자료집>

- 국립국어원(2014), 「2014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6), 「2016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7), 「2017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8), 「2018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9), 「2019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웹사이트>

구글(Google)설문지:

https://docs.google.com/forms/d/1sdBgYjA06P-UVSut2ySIs8r4ak4DBuygbhf_1NnGfKU/edit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Neologism for Chinese Learners: focused on Abbreviations

Yi Zhang

This study is to select an abbreviated education list for Chinese learners, and to seek specific education plans by using a categorized list.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 aimed at communication among learners is increasing, but it is not the case that Korean native speakers are not educated on abbreviations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abbreviation education in vocabulary education, and suggests abbreviated vocabulary materials and education methods that can be used in actual vocabulary education.

In order to collect the abbreviated vocabulary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776 new words included in the 「2018 New Word Survey」 and the 「2019 New Word Survey」 were used as basic research subjects based on the New Language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abbreviated word was extracted from the new words included in the new word data report,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educational abbreviations were followed. A survey was conducted for Korean native speakers with a total of 140 abbreviations by combining the abbreviations selected from the reference data and the abbreviations

collected from recent medi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55 abbreviated vocabularies with high frequency of use were selected as educational lists and categorized by topic.

Finally, the ‘O-H-E’ teaching model, the ‘P-P-P’ teaching model, and the ‘Flipped Learning’ teaching model are used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s of Chinese middle and high-level learners by using a short list categorized by topic. Three educational methods were proposed using the teaching model.